

마다

+10이라는거군요



아라쉬: 이거 배워야겠다



호인: 흠터레스팅....



쿠사카베 린: 아마 3월은 내내

픽업만 할듯...

4월 맞춰서 2부 시작하고...

이게 겜이니 딜라야!

한그오는 1주일이 멀다하고 이벤트중인데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페그오는 겜이 아닌데요

한국이던 일본이던



쿠사카베 린: 룰렛머신에 스토리 붙인...

음음



Kaming (GM): 흠냐

왔습니다.



아라쉬: 휘유



쿠사카베 린: 이제부터 데드엔드를 향해 일직선 치킨레이스인가..

파이토다요!

사람은 죽어서 이름을

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

카미가카리는 죽어서....

뭘.... 남기지....



쿠사카베 린: 쿠시미타마....?



Kaming (GM): 가죽...

ㅋㅋㅋㅋ

그럼 밍나 오셨나요?



호인: ㅎㅎ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0



아라쉬: spa

넴



Kaming (GM): 자 그러면

시작해볼까요

=====

서자가 사쿠야의 영핵을 빼앗아간뒤...

하사시로 시는 혼란의 빠졌습니다.

직원A: "지부장님! 대영맥의 상태가...!"

"각지에서 초상현상이 목격되고있습니다...!"

"대영맥이..뒤틀리고있습니다. 이상태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..."

 와타나베 아키: "최대한 빨리 인근의 대원을 출동시켜! 민간인들의 대피를 최우선으로! 그리고...서자씨의 대한 추적은?"

직원A: "아직..하사시로 시 밖으로 나간거같지는 않습니다. 희미하지만 감지되고있습니다."

 와타나베 아키: "다행이네요...아직 밖으로 나가지않았다면..희망은 있습니다."

 코노하나 사쿠야: "큭...아마도 녀석이 밖으로 나가지못하는건... 영핵때문이겠지... 영핵은..나를 이루는..대영맥을 이루는 근원"

"대영맥이..덜컹하는한.. 이 곳을 나가지 못할것이야...하지만 계속해서..영맥이 불안정해지면..그 속박도..풀리겠지"

@콜록

 쿠사카베 린: "사쿠야짱..."

 호인: "당장 쫓아가야겠구나 이럴 시간이 없다!"

 코노하나 사쿠야: "녀석은..그때를 기다릴게 분명..."

@콜록콜록!

기침을 심하게합니다.

 호인: "이러는 동안에도 사쿠야는 계속해서 약해질터"

"자세한 위치는 알수 있겠느냐?"

@아키에게

 와타나베 아키: "잠시만요.."

".....되었습니다."

"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"

"하사시로 각지에서 일어나고있는 초상현상은 분명 대영맥을 불안정하기위한 수작일터"

"초상현상이 일어나고있는 곳은 확인했습니다."

@하며 자신의 핸드폰을 벽에 비추어 지도를 나타내죠

 와타나베 아키: 정보1공개

"그외로..수많은 쥐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와서...시민들을 공격하고있다고해요"

"지금 시에서 민간인들의 대피명령을 내렸지만..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이야, 피터 더 파이퍼..?"

 아라쉬: "움직이는 재앙이 되어 버렸네."

"쥐는 병균을 옮길수도 있어."

 와타나베 아키: "너무나 갑작스러운지라...피하지 못한 민간인들도 다수..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쥐떼에 대한 리액션...가볍게 웃는군요.

 아라쉬: 반대로 심각한 표정이 되지요

한손끝을 활현에 걸어둔 채 입니다

-

 호인: @아라쉬와 마찬가지로 표정을 일그러뜨립니당

 쿠사카베 린: "이렇게 되면...."

 호인: "서자를 쫓는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명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것이 우선이겠구나"

"...나는 서자가 벌인 일을 조금이나마 수습하고 싶구나 아키 아직 피하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?"



와타나베 아키: "일단...주택가A쪽과...이즈츠노미야 기술고교의 학생들이 급하네요"

지도를 가리키며



호인: 어디로 가야하오...

일단 호인이는 음...

rolling 1d2

(2)

= 2

기술고교쪽으로 가고 싶습니다



미츠루기 아야네: "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"

"저희인원들도 민간인 구출에 최대한.."

@이라며 아키와 상의중



쿠사카베 린: "말겨줘, 최선을 다할테니까...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뭘, 적당히 행선지를 정하라는 듯 가만히 있네요.



코노하나 사쿠야: "시로가...힘내주고있지만 시간이 얼마없다...미안하군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빈 곳으로 갈거니까.



쿠사카베 린: (취사냥과 학생구출이군요)



아라쉬: "그럼, 나는 주택가 A로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둘 둘. 나도 주택가."



쿠사카베 린: "그럼 난 기술고교네!" @압!



호인: "그럼 출발하자꾸나"

@기술고오오오교



코노하나 사쿠야: =====

자 그러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감정을 뺏읍니다



Kaming (GM): 넵

초기영력굴림 해주시구요



아라쉬: rolling 4d6

(2 + 5 + 2 + 4)

= 13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4d6

(5 + 3 + 6 + 4)

= 18



쿠사카베 린: 사쿠야 감정이땃

rolling 4d6

(3 + 2 + 5 + 3)

= 13



호인: rolling 4d6

(5 + 4 + 6 + 4)

= 19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린 아라쉬 호인 셋과...



호인: @일행들과 사쿠야 아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렇게 셋만.



쿠사카베 린: 일행이랑 사쿠야, 아야네로!



아라쉬: 사쿠야

호인

세실리아

아키

아야네 에게 감정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아 아야네도 추가.



Kaming (GM): '□'



호인: 저도 아야네 추★가



Kaming (GM): 그러면



호인: 꺾었어...!!



Kaming (GM): 모두들 D100



호인: rolling 1d100

(85)

= 85



아라쉬: rolling 1d100

(94)

= 94

호엣?



호인: 호에에에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1d100

(64)

= 64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1d100

(93)

= 93

주사위운이 이상하게 좋군...



Kaming (GM): 스게

아라쉬 부터군요.

rolling 1d3

(3)

= 3

하시정

아라쉬는 어디로?



호인: 기세소실...



아라쉬: 아



쿠사카베 린: 주택가셨중



아라쉬: 주택가에여

어디로 갔냐고 해서 여기 있는데..

라고 대답할뻔



호인: 저도 사라진건줄 알았ㅋㅋㅋ

*저는



Kaming (GM): ㅋㅋ

그러면 등장인물 초대해주시고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뽀, 둘 둘 이라고 얘기했지만...어느새 사라졌다.



아라쉬: 세실리아

오세요...!



Kaming (GM): ㅋㅋ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토끼는 따로 둘 것이다! 필요하다면 등장하도록 하지!



아라쉬: 알겠다!

그럼
아라쉬는 일단 혼자서
주택가A에
가있습니다.



호인: 혼자서ㅠㅠ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어차피 봉신강림이 있어서 등장에 실패하는 일은 없다)



아라쉬: -



Kaming (GM): 넵

=====

그러면 아라쉬는 주택가A에 도착합니다.

그러면 여기저기서..

쥐의 울음소리와 함께...

검은 쥐때를 볼 수 있겠죠.

쥐: "찍찍찍!!! 찍찍!!"



아라쉬: "사람을 유린하는 쥐들의 군세인가... 꽤나 비틀려진 광경인데."

쥐: 거리를 꽉채운듯한 쥐때들..

그리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..

간신히 높은곳에서 구조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.



아라쉬: 혼잡한 지상길 대신에 지붕 위를 뛰어 다녀서 도착한 상태입니다

아줌마: "이게 뭔일다냐..사람살려!"

여학생A: "히익..! 쥐..쥐가 왜이렇게.."



Kaming (GM): 자동차 위에서 간신히 쥐를 피한 두사람들

하지만 쥐들은 그 두사람을 가만히 둘 생각은 없는지..

계속해서 자동차를 올라가려고합니다.



아라쉬: 그럼. 그 모습을 보고 붉은 활에 화살을 걸겠네요

여학생A: "까악 오지마!"

@퍽퍽

간간히 올라오는



아라쉬: "쥐들을 쏘아떨어트려, 길을 만드는건가..."

여학생A: 쥐들을 가방으로 때려날려보냅니다.



Kaming (GM): 아라쉬는 어떻하나요!



아라쉬: 우선. 일직선의 화살을 발사해서 쥐떼의 파도에 길을 만듭니다

그리고 벌려진 틈으로 화살비를 내리게 해서. 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네요

이걸로 두 사람이 지나갈 구멍이 생기겠죠

-



Kaming (GM): 그렇군요.

그러면 쥐때를 물리칠만한 공격이 가능한지 명중판정을 보겠습니다!

목표치 14

텔런트 섞을 수 있어요 @소근속느



아라쉬: 준비를 소모해서 장비 효과로
명중에 +1



Kaming (GM): 앓 장비효과는 다메



아라쉬: 깨야악



Kaming (GM): 전투는 아니기에!



아라쉬: 영력2를 써서
양식으로 명중에 +1



Kaming (GM): 넵



아라쉬: ...

아 이거

개시에서 5 써서

기세소실

이거 안쓰면

사람들 눈에 보일테니



아라쉬: 괜찮겠조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영력결계를 친다)



아라쉬: (은밀하면 명중에 +2)



Kaming (GM): 은밀효과는 못볼듯
기세소실써도.



아라쉬: 케아아악
그러면 기세소실은
쓰지 않겠습니다
그럼 양식만 섞어서
명중 판정 해볼게요



Kaming (GM): 넵



아라쉬: rolling 2d6+10

(1 + 3)+10

= 14

아슬



Kaming (GM): 성공



아라쉬: 뭐어. 이 방법은, 생전에 아군들의 퇴로를 열기 위해
썼었던 방법이니까요
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.

인간 상대로도 가능했던것을, 쥐들 상대로 못할리가 없죠

-

쥐: "찌이이익!!"

하는 소리와 함께

차를 감싸고 있던 쥐들 대다수가

단 하나의 화살로 인해 사라집니다.

여학생A: "..하?"

아줌마: "오메..뭔일이 일어난겨.."

@사라진 쥐들을 보며

여학생A: "없어..진거같아요"

@조심조심..차를 내려옵니다.

@가방은 짊어지고..

"뭐야..이게..오늘 학교 쉰다해서 좋아라 하고 돌아왔는데..">@홀쩍

아줌마: "일단 학생 요 앞이 우리집이니 우리집으로 대피하다 가"

여학생A: "흑 그렇게 할게요"

@그렇게 아줌마랑 학생은 주위를 경계하며 빠르게 집으로 들어갑니다.



Kaming (GM): 다행히 구출한거같네요.

하지만 아직 주변의 쥐소리는 끊이지않습니다.

뭔가 원인이 있을꺼같네요..

쥐: "찍찍! 찍찍!"

이내..잠시 쥐가 사라졌던곳에..

다시 검은쥐때들이

몰려옵니다..



쿠사카베 린: (쥐사냥.... 맹수특공!)

쥐: 바글바글..



아라쉬: "...원인을 찾아서 끊어야 하냐."



호인: (으음....!!)



아라쉬: 그럼..

감지?



Kaming (GM): 어떤식으로 할꺼냐에 따라 다르겠죠?



아라쉬: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

쥐들의 몰려 오는

근원지를

찾아보겠네요

천리안 D



호인: (오올....ㅋㅋ)



아라쉬: 아라쉬 목 부근의 노란색

후드였더라구요)
(어제 처음 암)



호인: 후드...였구나...



아라쉬: 시력을 이용한 탐지는
어떤 능력치죠



쿠사카베 린: (후드였지요)



Kaming (GM): gma
추적일꺼같네요.



아라쉬: 민첩인가



Kaming (GM): 추적이면 난이도는 12 드리겠습니다.



아라쉬: 그럼

rolling 2d6+8

(4 + 2)+8

= 14

"저긴가...?"

-



Kaming (GM): 그러면

아라쉬의 눈에...

쥐들이..어디서 나오는지 보입니다..

쥐들은..

거리의 하수구에서..쏟아져나오고있었습니다.

하사시로 시의 모든 하수구는..



Kaming (GM): 모두 이어져있죠...
단한곳으로



아라쉬: "하수구...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건가."



Kaming (GM): 정보3 공개



아라쉬: "하수도는... 연안공업지대의 하수구 처리장..."
"거기가 쥐들의 본거지."
뛰어내리면서 모두에게 연락을 넣겠네요

-



Kaming (GM): 정보공개합니까?



아라쉬: 네

-



Kaming (GM): 공개

쥐: "찍찍찍!!"

이 쥐들을 모두 없애버리는건...근원지를 없애야만 가능하겠네요..
 방금처럼 거리를 싹 비워도..
 금새 하수구에서 올라와 다시 거리를 매웠으니까요..
 다행히 거리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없는듯하네요.
 하지만 저 쥐들이 집까지 차오른다면..



아라쉬: (모든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다면 하수구에 쥐약을 풀...)



호인: (흠터레스팅....

쥐: 씬아웃?



아라쉬: 념

-



Kaming (GM): =====

다음은

린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

이군요



호인: ㅎ...

린자아아앙

ㅍㅍ



쿠사카베 린: 린자앙

뽀파카뽀

호인이랑 같이 기술고교DA!



호인: 안돼겠소 갑시다!



쿠사카베 린: 학교문이 닫혀서 못 나오는 학생들...

학교생활....

핫



호인:?



쿠사카베 린: 일단 초대를

호인말고는 없겠지만

그런고로

절찬 좀비물을 찍고 있을 학교를 기대하며... @도키도키



호인: 귀귀



Kaming (GM): 그럼 초대받으신분은

등장판정 굴



호인: rolling 2d6

(6 + 1)

= 7

으음!

4와 6을 교환하지요!



Kaming (GM): 네

=====

린과 호인은 서둘러 이츠츠노미야 고교에 왔습니다.

그리고..수많은 쥐들의 울음소리..

그리고 교실에서 공포에 떨고있는 학생들을 보죠

몇몇이 창문을 부시려고 하지만..



Kaming (GM): 창문조차도..

부셔지지않습니다.

그리고..



호인: 오 갓



쿠사카베 린: 저희는 학교 밖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군요



Kaming (GM): 운동장과 학교 주변에는 쥐때들이 돌아다니고있지요.

네



쿠사카베 린: 'ㄹ' 바이오해저드물이군요 이거이거



호인: 쥐들 사이로 뛰어들어서 주의를 끌수 있을까요?

필요하다면 수마변신도 해봐야지

^^



Kaming (GM): 수마변신하신다면 따로 판정은 필요없을꺼같네요.



쿠사카베 린: 오홍홍

호랑이 좋아요



호인: 그럼 수마변신해서 난입하겠습니다

코스트 6 6



호인.: @웬 커다란 호랑이 한마리가 학교로 난입합니다!

쥐: "찍!?"



호인.: "크와아아악!!!"

쥐: 쥐들이 놀란듯 움직이지만..

이내..

"찍찍찍찍!!!"

공포를 잃어버린건지..

호인을 향해

검은물결이

쥐: 움직입니다.



호인.: 죠토다



쿠사카베 린: 이치노스케 소환이다

가랏!

호인.: 끼요오오웃!



이치노스케: 120mm포 사용묘사DA!

입이 벌어지면서 나온 건 크고... 아름다운...
아무튼 그걸 뺏아하고 쥐때 가운데에 발사합니다
(이름이 뭐더라!)
(앗 네오 암스트롱 뭐시기 네오!)



쿠사카베 린: (영문 3 소비하고...)

(네오 암스트롱 사이클론 제트 암스트롱 포엠크)



호인.: 호이는 검은 물결로 돌진

호이?

호인

쥐: "찍찍찍찍!"



쿠사카베 린: "가라 이치노스케!"

"전부 쥐포로 만들어버려!"



호인.: (그 쥐포가 아니얏...!

쥐: 쥐들은 피를...튀기지않으며
마치 모노노케들이 소멸하듯..
소멸하네요..
하지만 그 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
"찍찍찌찌찌!"



쿠사카베 린: "으게엑!" @떼로 몰려와서 징그럽다



호인.: "아무래도 서자의 사역마인 모양이군!"

쥐: 여러분이



호인.: "내가 주의를 끌테니 안에있는 아이들만이라도 구해주거라!"

쥐: 쥐들을 유인한턱에..
학교주변에 쥐들은
없어졌지만...



쿠사카베 린: "사, 사역마~!? 본질은 이치노스케 같은 거라니..." @안 귀여워

쥐: 학생들과 교사들의 힘으로는 열지 못하는것같습니다.



쿠사카베 린: 뭔가 힘이라도 쳐져있는 거려나



호인.: "크윽...잠시 여기 머무를수 있겠느냐?"



쿠사카베 린: "말겨뒤!"



호인.: "고맙구나"

@호인이가 달려가웁



리포: 이치노스케는(은) 마구날뛰기!

쥐: "찍찍찍찍!!"

쥐들이

이츠노스케를 덮칩니다.



호인.: (ㅍㅍㅍ)

쥐: 짹짹짹짹끼끼끼끼끼



쿠사카베 린: "전기구이가 되어버렸~!" @무기공격
원거리 스텐건이다

쥐: 딱히 판정은 필요없지만..
그사이 호인은 무엇을!



쿠사카베 린: 구운냄새가 나려나!



호인.: @문으로 달려가 그것을 분★쇄 해버립니다

쥐: 이치노스케가 벌 수 있는 시간은
단 1번의 판정뿐!



호인.: 호랑이를 마주친 학생들은 뭐
알아서 하겠죠^^

쥐: 강힘으로 부셔버리나요?



호인.: 네

쥐: 좋습니다.



호인.: 그아아앗!!
파괴한다!!

쥐: 체력판정 난이도는 16



쿠사카베 린: (쥐때 다음은 백호.... 저 멀리선 정체불명 생명체가 난동부리는 중...)
(학생 인생 난이도 넘나 높다)



호인.: rolling 2d6+11

(1 + 3)+11

= 15



Kaming (GM): 싹빠이



호인.: 훗
1과 4를 교환



Kaming (GM): 넵

성공
그러면..
호인이 문을 파괴하려하자..무언가 막은것같지만..
그걸 힘으로 무시하고 열어버리는군요.



호인.: @진심펀치!!

Kaming (GM): AT필드를 손으로 찢듯..



호인.: 찢어버렸다
그아아악!!



Kaming (GM): 쿵!
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했군요..



호인.: (알아서 고치세요^^



Kaming (GM): 문가까이 있던 학생들의 바지가 조금 축축해진걸 보면
호랑이의 패기에
지려버린것같군요



호인.: (미안....
"시간이 없으니 빨리 수습하고 나가야 하느니라!!"
@호랑이가 말을함



Kaming (GM): 히익
하지만 이내



쿠사카베 린: (ㅠㅠ)



Kaming (GM):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다는걸 깨닫고는..
선생들의 주도하에..
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상상이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엑스트라들)



호인.: (엄청 침착하다



쿠사카베 린: (숙고이)
(저 호랑이가 우릴 다 죽일 거야! 같은 상황이 아니라닉)



Kaming (GM): 항상 사건사고가 터지는 하사시로시의 선생들이였다.



호인.: @다 빠져나간것을 확인하면 린을 도와주러 갈거십니다
그리고 그때쯤



Kaming (GM): 이치노스케의 옷 반쯤이



호인.: 아라쉬가 연락을 하겠쥌



Kaming (GM): 뜯어먹히고 있군요



호인.: (헉...



Kaming (GM): 더이상 뜯어먹힌다면..



이치노스케: [야메떼에에엣!]



Kaming (GM): 위험한게 보여버렸!



호인.: (앗...아아...



이치노스케: [오늘의 승부팬티가!]

쥐: 쥐들은 이치노스케의 정체를 밝히겠다는듯이
옷을 뜯어먹습니다.



호인.: @이치노스케에게 달려든 쥐떼들을 떼어냅니다

이쯤에 아라쉬의 연락이 닿을거심니다

"연안공업지대인가!!"



쿠사카베 린: @열심히 전기쥐구이 만드는 중



호인.: "린!!"

"이쯤하면 됐다!"



쿠사카베 린: "오케이!"

"이치노스케!" @퇴각신호입니당



호인.: @ㅌㅌ



이치노스케: [36계!] @ㅌㅌ

쥐: 하지만 갑자기

쥐떼들의 움직임이

돌연 멈추더니..

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!



호인.: 뭣이!



쿠사카베 린: "뭐, 뭐지!"



호인.: "무슨일이!!"

쥐: 그리고...마치 호인과 린의 퇴로를 막듯

운동장을 둘러쌉니다..

그리고..



서자[흑화]: "여기..있었구나. 호인"



호인.: "서자!"



서자[흑화]: 쥐떼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

모습이..많이바뀐 서자.



쿠사카베 린: (흑화했어!)

(스컬그레이몬처럼!)



서자[흑화]: "또..누군가를 지키는거야?"



호인.: "물론이다"

"언제나 그렇지 않았느냐!"

"...눈을 떠라 서자!! 사신은 네 상처를 이용해 너를 조종하는것일 뿐이다!!"



쿠사카베 린: "정신차리는 거야 서자짱!"



서자[흑화]: "하하....그래 누군가를 지키는구나.. 지킬 힘이 있구나.. 호인은.."

"아아..나는 드디어 눈치챘어..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뭔지.."

"호인을 볼때마다..느끼던..느낌.."

"그건..바로.. '질투'였어"



Kaming (GM): 전투입니다.

-  호인.: "뭐라고...!?"
-  쿠사카베 린: (콧....!)
-  호인.: 콧...!!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등장하죠
@가능합니까?
-  Kaming (GM): 네
서자의 양옆에..
쥐들이 나란히 섭니다.
-  무장쥐 x20: "쫌쫌!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봉신강림으로 등장판정은 자동성공.
-  무장쥐 x20: 넵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봉신강림
특수 / 사용자 / 사용자 / -
등장판정시 사용, 등장 성공, 영력 1개 임의의 눈으로 변경, 세션 3회
@4 > 6으로 변경
-  호인.: "질투...인가..."
"....."
@조용히 눈을감고 뭔가 생각합니다
-  쿠사카베 린: "그렇다고 싸워야한다니...!"
@슬픔
-  서자[흑화]: "그래 난 늘 강한 호인을 질투했던거야.."
"호인이 동료들이랑 같이 싸웠다고 이야기할때마다..가슴이..아팠어"
"나도 나도..저랬으면 나도 누군가를 앞에서 지켜줄 수 있었다면.."
@가슴을 쥐어짜며..
"하지만 나는 불가능했지"
"그래 나는 어설프게 호인을 따라해려했을뿐.."
-  서자[흑화]: "그가 아니니까..강하지 않으니까.."
"이꼴이된거야"
@손에는 칠흑으로 변한 절편
얼굴의 반은 무언가로 변한모습
그의 눈은 강한 질투로 붉게 타오르고있네요.
"그러니까..그만 내앞에서 사라져...사라져!!"
-  Kaming (GM): 전투시작입니다.
-  호인.: "번뇌를 이겨내지 못하면 깨달음도 없는것이다 서자...그 번뇌를 이겨내도록 내 조금 도와주도록 하마...!"
-  Kaming (GM): 개시!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웃차...백업 등장."



호인.: 결정! 장착!



Kaming (GM): 갑자기 나타난 세실리아장!



호인.: "세실리아...!"

진 결정장착

개시/ 사용자 / 사용자 / 5

특수효과. 대상은 한번의 전투 중 [장갑]과 [결계]에 +8의 수정을 받는다.

이 《탈런트》는 [개시]를 소비하지 않는다.



쿠사카베 린: 개시인가아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저-멀리 지붕에서 도착해오겠군요. 마력을 이용해서 날아온다고 하는게 정확할 지도.



쿠사카베 린: 전술보조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
전투력 증강

개시 / 7매스 / 1체 / 같은 눈

특수효과. 전투중 대상은 이하의 효과 중 1개 취득

1. 물리랭크 +1

2. 마법랭크 +1



Kaming (GM): 무장쥐와 서자에 대해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1d6

(5)

= 5

행동력에 +5!

19!



Kaming (GM): 식별판정 가능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대상은 이치노스케.



호인.: 난이도는요?



Kaming (GM): 서자 15

쥐 13



호인.: 그럼 저는...

쥐—맨을 대상으로 식별판정



Kaming (GM): 넵

식별판정 ㄱ



쿠사카베 린: 그럼 저는 스컬서자문을



호인.: rolling 2d6+3

$$(1 + 2) + 3$$

$$= 6$$

ㅌㅌ ㅌㅌ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+11

$$(5 + 4) + 11$$

$$= 20$$



Kaming (GM): 종료타이밍에
등장판정으로 전투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
아라쉬님



호인.: 2와 1을 교환해버리면
펄이 돼버렸!



쿠사카베 린: 스컬서자몬의 정보가 나온닷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쥐...



쿠사카베 린: 분명 바이러스형이겠지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식별



호인.: 스컬서자목ㅋㅋㅋ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지성판정
18



쿠사카베 린: 자력약점인가
날뛰어라 스텐건...



호인.: (회화가 가능이야!



Kaming (GM): 스텐건은..
전격이야



쿠사카베 린: 하지만 난 전격! 즉 쥐맨..
초진동포를 달아놔야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서자 정보 다시좀)



쿠사카베 린: 행동치 17에 능력치 비밀... 냉기화염자력 약점 찌를 건 없나
아 이치노스케가 약점 찌르는군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난 이미 본체에게 줬다 전투력증강)



쿠사카베 린: (샷스가 본체 이치노스케)
(린은 소환셔틀일 뿐)



호인.: 아...

생각이 짧았다



Kaming (GM): 자 그러면
시작합니다.



호인.: 넵



Kaming (GM): 린의 턴



이치노스케: 일단 잇짱부터
준비없고
아니 준비태런트가 없단 말이었습니다
히익!
전투이동!
그리고 120m포입니다



이치노스케: 범위로 화염속성 데미지



서자[흑화]: 네



이치노스케: 고정명중 21!



서자[흑화]: 스게 엄청 높넵



호인.: 스바라시...



이치노스케: 서자는 과연 피할지....
데미지를 갑니다!
전투력 증강
약점속성으로
+2d!



호인.: (서자죽는다아아아아!!



이치노스케: rolling 8d6+36

(6 + 4 + 5 + 3 + 4 + 2 + 1 + 4)+36

= 65

범위니까 양옆까지 다 맞는군요
죽어랏



호인.: 72데미
이 아니구나
소환수는



서자[흑화]: 일단 전차였죠?



호인.: 고정치지 참



이치노스케: 넵



서자[흑화]: 전차 3d 에다가..
탤런트 효과로 2d추가?



이치노스케: 거이게 장비로 +1ddy

요

거기에 장비로 +1d입니다



서자[흑화]: 고정치는?



이치노스케: 고정치는 제 레벨만큼 추가되는 공감성장입니다

앗 그러고보니 지금까지 잘못보고 있었는데

'수동판정'은 없었>...

죄송합니다

회피랑 저항에는 못 써!



서자[흑화]: 흠 오케



이치노스케: 데미지는 소환카드 +3

전투력증가로 3X레벨(4)



서자[흑화]: 일단 데미지 다 받고요



이치노스케: 넵



서자[흑화]: <절편방어> 방어/사용자/사용자

데미지감소시 사용. 대상의 공격이 [사격]공격이었을 경우 데미지를 2d+9만큼 감소한다.

rolling 2d6+9

(1 + 2)+9

= 12



이치노스케: 호에엑



서자[흑화]: 12감소



이치노스케: [네오 암스트롱 (너무 길어서 짤린 팻말) !]



호인.: (그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는군



이치노스케: @평



서자[흑화]: 일단 서자빠고 전멸



이치노스케: 폭발연기에 휩싸인 이치노스케와 서자...



쿠사카베 린: "해치웠나!"



서자[흑화]: "뜨거워.."

@절편으로 자신을 감싸고있습니다.



호인.: (그런 절대 쓰러지지 않는 클리셰 대사를....!!



서자[흑화]: 하지만 아직..서있네요.



쿠사카베 린: "다행이야 서자는 아직...."



서자[흑화]: 쥐들은 다 불탔지만

이치노스케: (하지만 린의 턴으로 이행...하는 거시다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냥 없애면 될 것을...하는 생각을 하네요



쿠사카베 린: 준비로 비전의 신언 : 대미지+1랭크



서자[흑화]: 옷에 불이 붙었지만...



쿠사카베 린: 준비를 소비하지 않으므로



서자[흑화]: 그래도 서있습니다



쿠사카베 린: 뒤로 한 칸 간이이동...

무기공격입니다. 속성은 전격, 랭크는 2+1 , 저항(소멸), 10마스

"이걸로... 기절해줘...!"

발동롤!



서자[흑화]: 룰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+11

(1 + 1)+11

= 13

아?



호인.: ...?



서자[흑화]: 네 펄블데시타



쿠사카베 린: 호에에에

5를 1로



서자[흑화]: 넵

하지만 비리비리...가 나가지않네요..

오히려 핑!

하고 린에게 연기를 선사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에에~!? 배터리 폭발!?"

@쿨룩쿨룩



서자[흑화]: 서자턴

"사라져.."

"내앞에서"

준비없

[무기공격]:물리공격/10매스/2체 대상에게 [형상:둔기], 5d+28의 물리 대미지.2회공격

절편을 길게 늘어트린다음



서자[흑화]: 휘두릅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2회온다 히익)



호인.: 고만해;;



서자[흑화]: 대상 이치노스케 + 린

 쿠사카베 린: 호에에

 호인.: 악;;

 서자[흑화]: @좌악!

 쿠사카베 린: 명중은 과연...

 서자[흑화]: 명중 19

 쿠사카베 린: 이치노스케 자동실패고...
린은 일단 룰은 해봅니다 ㅠ

 호인.: 제발 대성공;;
크리티컬!!

 쿠사카베 린: rolling 2d6+3

(2 + 4)+3

= 9

 서자[흑화]: 싯빠이

 호인.: 악!

 쿠사카베 린: 무리이

 호인.: 이걸 정말 아프다!

 쿠사카베 린: 1하고 4를 체인지

 서자[흑화]: rolling 5d6+28

(1 + 2 + 3 + 2 + 1)+28

= 37

 쿠사카베 린: 실패는 그대로~
이건 그대로 맞습니다

 서자[흑화]: 한번더 공격합니다.

 호인.: 얼

 서자[흑화]: 이치노스케와

 쿠사카베 린: 어디보자 각각 장갑이

 서자[흑화]: 린을 한번강하게 쳐냅니다!

 쿠사카베 린: 이치노스케 27, 린 36데미지

 서자[흑화]: 하지만 이내 절편은 다시 돌아가는듯..하다가
반대쪽에서 휘둘러지는군요!
"모두..사라져!"

 쿠사카베 린: "크윽...!"

 서자[흑화]: 최악 최악!

 쿠사카베 린: "이치노스케! 부탁해!" @데미지 산출 후 <위력흡인>
코스트는 4

 서자[흑화]: rolling 5d6+28

(4 + 5 + 3 + 2 + 3)+28

= 45

 쿠사카베 린: 이치노스케가 서자에게 달려들어

 서자[흑화]: 45데미지

 쿠사카베 린: 온몸으로 채찍을 막아냅니다

 서자[흑화]: "....!"

 쿠사카베 린: 장갑 10으로 35데미지

 서자[흑화]: 이치노스케 피는?

 쿠사카베 린: 88-27-35....
계, 계산기..

 호인.: 26남네요

 쿠사카베 린: 슷고이
암산이 안 돼...!

 이치노스케: [고기방패의 저력이다아아!] @넵따 돌진

 서자[흑화]: "너...도 누군가를 지키는거구나.."

"아아..아아아아!"

"질투가..나!"

《질투》:상시/사용자/사용자

누군가가 자신의 공격의 대하여 방어텔런트를 사용 할 경우 그 전투동안 데미지산출시 +1d(최대 4d)증가한다.
전투시 1회 방어텔런트를 무시한다.

 이치노스케: (구에엑)

 호인.: 뭐라고...!!

 서자[흑화]: 《역병취》:마법공격/전투지대/1체/소멸

자신의 공격이 데미지를 가했을때 사용 할 수 있다. 대상에게 4d6+20의 마법공격을 행한다. 데미지 적용후 대상은 상태이상[암흑]과[맹독]을 받는다.

 이치노스케: 엄마야

 서자[흑화]: "사라져...!"

붉은 피눈물을 흘리며

이치노스케를 노려봅니다.

대상 이치노스케

 쿠사카베 린: (아까 공격은 이치노스케뿐이었으니..혼자 받는군)

 서자[흑화]: 발동 16

 쿠사카베 린: 저항16...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어차피 1체임)

 쿠사카베 린: 능동우선이니...

 서자[흑화]: 네

 쿠사카베 린: 와라!

 서자[흑화]: rolling 5d6+20

(1 + 2 + 6 + 2 + 6)+20
= 37

갑자기 수많은 쥐때가....

 쿠사카베 린: 결계 7 계산해도 무리!

 서자[흑화]: 이치노스케를 덮칩니다.
그리고..
폭발!
녹색빛으로...

 이치노스케: [폭발엔...딩] @팻말조각

 서자[흑화]: 그리고 자욱한 독안개가...
"흐..흐..하하하!"

 쿠사카베 린: "이치노스케...! 미안...!" @콧

 서자[흑화]: "누군가를 지키면..그꼴이 나는거야"
"나도..나도 누군가를 지키고싶은데!!! 나는..."
@변한 얼굴을 쥐어뜯으며
다음
세실리아 턴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모순이네. 지키는 사람은 그꼴이 난다, 그런데 자기는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?"
@간이이동

 호인.: "이게 네가 원한것이냐 서자!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지금 피달은거 린 뿐이죠?)

 서자[흑화]: "하하..꼴사나워...이런 내가 정말 싫어..아아 부러워..호인과같이 강한 너희들이.."

 호인.: "이게 네가 원하는 '지키는 힘'인것이냐!!"

 서자[흑화]: 그렇지

 쿠사카베 린: (넵)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럼, 너도 저 꼴이 되고 싶다는 거네?"

-  서자[흑화]: "좀더..좀더 호인과같이 강해져야해..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삼단논법.
-  서자[흑화]: "모두를 지킬 수 있게....아아..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리고 고위치유 린
-  서자[흑화]: "부러워.."
-  쿠사카베 린: "자신을 잃어선 안 돼 서자짱...!"
-  호인.: "....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고위치유
광휘치유, 치유 마술의 달인 효과 적용중.
공격 / 전투지대 / 1체 / 6, 홀
마법공격, 대상의 생명력 랭크3 마법데미지 회복, 효과 적용시 영력 1개의 값 +-1(선택), 임의로 고위치유 1회 사용 가능, 추가 고위 치유 코스트 통상 소비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명중: **19**
회복량: **25**
-  서자[흑화]: 스게..
매크로
-  호인.: 굿
-  서자[흑화]: 25회복인듯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남은피있음?)
25회복 맞음
(피 더채워야?)
-  서자[흑화]: 굴림이 안나오니
-  쿠사카베 린: 자그마시
-  서자[흑화]: 확인하기 조금 그렇구만
-  쿠사카베 린: 11+25니까 36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네모에 올리면
롤 보임
-  서자[흑화]: 스게
-  쿠사카베 린: 11남네요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마우스를 네모에 오버시키면 보여요)
-  쿠사카베 린: 스게
-  서자[흑화]: 25회복하시길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빨간테두리는 다이스 중 1개이상 1)



서자[흑화]: 린



쿠사카베 린: 넵 처리 완료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고위치유 함더



서자[흑화]: 호짱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
고위치유

광휘치유, 치유 마술의 달인 효과 적용중.

공격 / 전투지대 / 1체 / 6, 홀

마법공격, 대상의 생명력 랭크3 마법데미지 회복, 효과 적용시 영력 1개의 값 +-1(선택), 임의로 고위치유 1회 사용 가능, 추가 고위 치유 코스트 통상 소비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명중: **12**

회복량: **34**



쿠사카베 린: (힐러 숙고이...)

(풀피!)



서자[흑화]: 스게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펄블)



호인.: 굳힐러



서자[흑화]: 펄블이네..

펄블이면..

못받



호인.: 부왁



서자[흑화]: 실패임



쿠사카베 린: 옛 펄블이네

익ㅋㅋ



서자[흑화]: 사용한 고위치유 영력

소모해주시고

높은 영력 1로



쿠사카베 린: (저 빨강이 펄블이군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, 회복력이 부족하면 재차 회복시켜주려 합니다만.



서자[흑화]: 하지만 연속된 치유의 부작용인가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주의가 흐트러져서 실패...



서자[흑화]: 아직 익숙치않은것인가!

실패하고마네요..

영력도 덤으로 꼬여버립니다.

호짱턴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직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닌가.."



호인.: "지금에 네게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겠느냐 상실감 때문에 고통받는 너에게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쫓, 혀를 찹니다.



호인.: 이동



서자[흑화]: "호...인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영력이 뒤틀리지만 영력이 없어서 변화가 없다)



호인.: "허나 한가지 알아두거라"



서자[흑화]: @괴로운눈으로 호인을 바라봅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그리고 빨강은 굴린 다이스 중 최소숫자가 있을때 뚝)
(1이 1개 이상 뜬거)



호인.: "서자 너 역시 언젠가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게 될것이야"

"끝없이 번뇌하거라"

무기공격



서자[흑화]: 넵



호인.: 명중률

rolling 2d6 + 11

(6 + 1)+11

= 18

이런...



서자[흑화]: 회피치 19

이치리 타리나이



호인.: 바꿀게 읍습니다



서자[흑화]: "잘난듯이..설득하지마..!"



호인.: @서자를 향해 주먹질 하지만



서자[흑화]: 절편으로

튀겨냅니다!

@찰싹!



호인.: "그렇다면 네 각오를 먼저 보여봐라!!"



Kaming (GM): 종료타이밍

영력회복해주시고.



호인.: rolling 4d6

(2 + 3 + 4 + 4)

= 13

아 이게 아니야

rolling 3d6

(4 + 6 + 3)

= 13



서자[흑화]: "하하..모든 십이지중에서 내가 최악이야.. 최악의 존재라구 그러면..나도 다른 십이지..호인과같아 지려면...이러는 수 밖에.."

2R

개시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4d6

(1 + 3 + 1 + 2)

= 7



호인.: "스스로 십이지의 그늘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?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전투력증강 대상은 린



쿠사카베 린: 앓앓 영기울 영기울!

늦었다 쿵



서자[흑화]: 령기울!



쿠사카베 린: 멍때렸...



서자[흑화]: 쓰시쵸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
전투력 증강

개시 / 7매스 / 1체 / 같은 눈

특수효과. 전투중 대상은 이하의 효과 중 1개 취득

1. 물리랭크 +1

2. 마법랭크 +1



서자[흑화]: 영력회복도 안하셨으니..



쿠사카베 린: 3을 4로!



호인.: "그럼에도 서자 너는 타인의 그림자를 볼뿐이로구나"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1d6

(6)

= 6



서자[흑화]: "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!"

"강한 네가 내 기분을 알아?"

 쿠사카베 린: (아까 먹은 염증약이 졸린 성분 들어있었나)

 서자[흑화]: "다 필요없어..모두 사라져!"
(졸립)

 쿠사카베 린: (전투력증강받았고...)

 호인.: "물론...그 상실감은...알고있다..."

 쿠사카베 린: (졸리다기보단 순간순간 집중력이 ...)

 Kaming (GM): 개시 타이밍 전투력증강 린에게 썼고
다른분들은?

 호인.: 저는 없어욧!

 쿠사카베 린: 개시 이치노스케 컴온!

 호인.: 그리고 아라쉬
난입은...?

 Kaming (GM): 령문 3 소모해주시고

 쿠사카베 린: (아라쉬 카밍거!)

 아라쉬: 난입

 서자[흑화]: 넵
등장판정
난이도 10

 아라쉬: 행운이 추가로 붙던거죠?

 호인.: 네

 서자[흑화]: 압

 아라쉬:

(+)+4

=

휘릭

-

 서자[흑화]: 성공

그러면

여러분 뒷편에

아라쉬가 도착합니다!

 쿠사카베 린: "아라쉬! 왔구나!" @화색이 돕니다

 서자[흑화]: 쥐들이
방해했지만
가뿐히

무시하고 왔군요



아라쉬: "아직 다들 무사한가?"
"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면 좋겠는데."
-



서자[흑화]: ".....동료들 전부 모였네"



쿠사카베 린: "응, 아직은...!"



서자[흑화]: "아아 부러워 부러워 나도 내가 강했으면.."
"호인같았으면..!"
"내 동료들도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아, 거참 마조생쥐주제에 쫄알쫄알..."
@가차없군요, 평가가.



서자[흑화]: 개시
타이밍



호인.: "...."
@그저 조용히 서자를 바라봅니다



서자[흑화]: 계속 진행합니다.
더하실분?
아라쉬?



호인.: 저는 없어욧!



아라쉬: 기세소실
요즘따라
매번
해제되는
은밀



서자[흑화]: ^^



쿠사카베 린: 눈물



호인.: ^^ㅎ...



서자[흑화]: 은밀은 단일 물리공격회피용+능동+데미지+용도
일뿐



아라쉬: 2 4 5였죠 아마
아까 제 영력이..
그리고보니 씬 종료하고 회복 안했었네



서자[흑화]: 그러네영
1d굴



아라쉬: rolling 1d6

(2)

= 2



서자[흑화]: 압
기세소실 소모해주시고



아라쉬: 2 2 4 5
니까
5를 소모



서자[흑화]: 서자부터 진행합니다.
"비켜..방해되니까"
[무기공격]:물리공격/10매스/2체 대상에게 [형상:둔기], 5d+28의 물리 대미지.2회공격
대상 호인 이치노스케!
절편을 길게 늘려
호인과 이치노스케를 타격합니다!



서자[흑화]: 명중 19



호인.: 회피액션부터!

rolling 2d6+11

(2 + 3)+11

= 16

넵
무리...



쿠사카베 린: 뭐 당연히 무리 이치노스케도...



호인.: 장갑 21



쿠사카베 린: 장갑은 10!



서자[흑화]: rolling 6d6+28

(3 + 1 + 2 + 4 + 6 + 2)+28

= 46



이치노스케: [개시부터 맞고 시작하나요!] @눈물



서자[흑화]: 46데미지
물리데미지



쿠사카베 린: 36데미지 처리!



호인.: 46-25 = 21



서자[흑화]: 한번더 공격



호인.: 아니

이치노스케: [마조 속성은 없어!]



호인.: 반대잖아



서자[흑화]: [무기공격]:물리공격/10매스/2체 대상에게 [형상:둔기], 5d+28의 물리 대미지.2회공격
명중 19



호인.: rolling 2d6+11

(2 + 3)+11

= 16



서자[흑화]: 최악! 최악!



호인.: 참 한결같다



서자[흑화]: 두번 휘둘러지는 서자의 절편!



이치노스케: 이걸 흡수할까요?

아마 이어지는 마법데미지 올텐데



호인.: (저는 괜찮습니다



서자[흑화]: 《질투》:상시/사용자/사용자

누군가가 자신의 공격의 대하여 방어텔런트를 사용 할 경우 그 전투동안 데미지산출시 +1d(최대 4d)증가한다.
전투시 1회 방어텔런트를 무시한다.

^^



이치노스케: 아 아까 적용되어서

지금도 오르는 중인거군

그에엑



호인.: 최대 4d라고 했으니까여요



이치노스케: 그냥 맞아야겠다



서자[흑화]: rolling 6d6+28

(2 + 2 + 5 + 3 + 1 + 5)+28

= 46

46데미지



호인.: 서자도 데미지 한결같네

장갑 21

25데미



이치노스케: 아까랑 같은 값 뺏니다 36데미지



서자[흑화]: 《휘감아 박기》:특수/전투지대/1체

데미지 적용후 사용. 대상을 5매스 이내로 설치한다.. 이후 대상은 그 라운드간 이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수동판
정치가 -1된다.



호인.: 뭣...!?



이치노스케: (호엑)



서자[흑화]: 대상 호인

"꺼져..!"

채찍이

호인을 감싸더니..

이치노스케앞에다가

내다뚫습니다!



호인.: "크윽!!"



서자[흑화]: 광!



이치노스케: [우왓 호랑이씨가 날아왔다]



호인.: @우당탕



쿠사카베 린: "호짱!" @다급히



서자[흑화]: 《역병쥐》:마법공격/전투지대/1체/소멸

자신의 공격이 데미지를 가했을때 사용 할 수 있다. 대상에게 4d6+20의 마법공격을 행한다. 데미지 적용후 대상은 상태이상[암흑]과[맹독]을 받는다.

대상 이치노스케



쿠사카베 린: (앗아아)



서자[흑화]: 다시한번 어디선가 쥐들이 나타나

이치노스케 주위로 모여듭니다.

"....사라져 모두.."

rolling 5d6+20

(6 + 5 + 6 + 5 + 6)+20

= 48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뭐어, 좋아좋아."



서자[흑화]: 겁나싸게나왔네



쿠사카베 린: 고정데미지로도 죽습니다 히이



호인.: 이런 세상에;;



쿠사카베 린: 65656이라니



서자[흑화]: 이치노스케 다시 폭산



호인.: "네 이 모습을 보면...동료들의 마음도 편치 않겠구나"



쿠사카베 린: 콧



서자[흑화]: "하하..내동료들?"

"모두 사라져버렸는걸.."

"하하하..!"

쿠사카베 린: (영기흡수 쫓어도 즉사였을데미지군)

-  서자[흑화]: 이치노스케도..사라졌습니다.
-  호인.: "그 사라져간 동료들이 너를 구하기 위해 쓰러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"
-  서자[흑화]: 다음
아라쉬 턴
-  호인.: "서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동료들 그들이 있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수단은 서자 네 존재뿐이다"
"그러나 네 모습을 봐라!!"
-  서자[흑화]: "내가..내가 약했기때문이야..내가..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화장실을)
-  서자[흑화]: 넵
-  호인.: (네넵
-  서자[흑화]: 아라쉬의 기세소실!
-  아라쉬: 흠
14칸인가
-  서자[흑화]: 넵
-  아라쉬: 15거리니까
당네요
-  서자[흑화]: 스게..
아쳐인가
-  호인.: 아차!
-  서자[흑화]: 활든사람이 아쳐일리 없을텐데
-  아라쉬: 아쳐가 활을 쏘리 없잖아요!
-  서자[흑화]: @후비적
-  호인.: 이동 불가면 설마
-  쿠사카베 린: (흐... 이번턴은 거리를 벌리려고 해도 어차피 서로 공격범위가 10마스라 치고받고군...
-  호인.: 방호도 못쓰는...?
-  서자[흑화]: 그러하다.
-  아라쉬: 그럼
-  호인.: 방호 못씀니까!?
-  아라쉬: 양식을 사용
-  호인.: 아악!
-  서자[흑화]: 넵
회피 19



아라쉬: 양식으로 명중에 +1
장비 효과로 명중에 +1하고
섬공기도 쓸게요
별로 의미는 없지만



서자[흑화]: 스갱.
넵



아라쉬: 범위가 될 뿐-
명중률



서자[흑화]: 롤



아라쉬: rolling 11+2d6

11+(6 + 5)

= 22

칩



서자[흑화]: 명중



아라쉬: 5랑 6이랑 교환할게요
아 제가 가진 5를
명중의 6이랑<



서자[흑화]: 넵
그래도 명중
데미지 주시죠



아라쉬: 어라? 나 왜 영웅혼의 일격 안쓴거지



서자[흑화]: 그러게용



아라쉬: ... 바꾸는거 취소하고 영웅혼의 일격 썼다고 해도 될까요?



서자[흑화]: 늦었다조



호인.: ㅎㅎ...



아라쉬: 크잉



서자[흑화]: 오소이!



아라쉬: 그럼
데미지에서
전투의 극의 효과로 양식 때문에 +10
살기심오 효과로 상시 외의 탠런트 두개(양식, 섬공기)를 써서 +20
거기에 지금 은신중이니까
+5?



아라쉬: rolling 2d6*1+47

(4 + 1) * 1 + 47

= 52

51물리 데미지

-



서자[흑화]: <절편방어> 방어/사용자/사용자

데미지감소시 사용. 대상의 공격이 [사격]공격이었을 경우 데미지를 2d+9만큼 감소한다.

rolling 2d6+9

(4 + 3) + 9

= 16

16+장갑 6

22데미지 감소

는 줘금



서자[흑화]: 마무리!



호인.: 사스가...



아라쉬: 멀리서 쏘아진 화살이 호인을 꿰뚫습니다

그림자 속에 녹아들었던 아라쉬가 팔끝부터 원래대로 돌아오네요

아

호인이래

ㅋㅋㅋㅋㅋㅋ

서자



아라쉬: -

호인이 사스가라고 말해서 헛갈렸어요!

-



호인.: (호인을 꿰뚫었다

크억!!

팀킬



서자[흑화]: ㅋㅋㅋㅋ



쿠사카베 린: (아라쉬... 언제부터 반전한 거냐!)



서자[흑화]: 사실 우리팀이었



아라쉬: (원작재현)

-



서자[흑화]: "큭...!"



쿠사카베 린: (언제부터 경화수월을 쓰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지? 같은)



서자[흑화]: 절편으로 화살을 완전히 쳐내지 못하고..

가슴에 박힌채 무릎꿇습니다.



호인: @뽕



쿠사카베 린: (다행히 무력화 성공.... 무릎에 화살을 맞은 서자가 아니었군)



서자[흑화]: "하아..하아.."

"나약..하네 나"



호인: "...누구나 그럴것이다"

@서자에게 다가가용

"세상 만물은 모두 업을 안고 살아가지 스스로에게 무력함을 느꼈다면 그 상실감을 딛고 일어서거라"



서자[흑화]: "흐..흐..하하하하! "

@다시 일어서며...



호인: "...."

@짱그러웃



쿠사카베 린: "서자짱...."



서자[흑화]: "아직..인가 아직이야..아직은 너에게..달지못하나봐 호인"



호인: "여전히 그 검은 안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서자야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, 정말. 이미 뭘 말해도 이해 못한다니까."



서자[흑화]: 서서히 몸이 흑빛재가 되어 사라지고있습니다.

"좀더...강해져서...나란히 설 수 있도록.."

"좀더...좀더..좀더!"

"강해져야해.."

"하하하하하! 기다려 호인..너에게도 내가 느낀..절망감을 느끼게 해줄테니.."

섬뜩하게 웃고는..



서자[흑화]: 이내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.



호인: @조용히 사라져가는 서자를 바라봅니다



아라쉬: "역시... 저건..."



Kaming (GM): 전투종료



호인: "...곧 다시 만나러 가마...네게 씌인 검은 힘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도..."



Kaming (GM): 서자가 사라지자..



아라쉬: "검은 신..."

-



Kaming (GM): 주변의 쥐들도..

사라집니다.

갈무리 타이무!



쿠사카베 린: (히이익)



Kaming (GM): 2마리데수



호인: 쥐를

 쿠사카베 린: (쥐 포를 뜯어낸다!)

 호인: 찢는다!

 쿠사카베 린: (위생적인가...)

 호인: rolling 2d6 선수필승

(5 + 2)

= 7

--

 Kaming (GM): 쥐꼬리 회피+1 1000G (효과치2)

호인은 쥐꼬리를 얻었다.

 쿠사카베 린: 굴러라

운명의 다이스롤!

계시 스킬!

rolling 2d6

(5 + 1)

= 6

 Kaming (GM): 다메다조

 쿠사카베 린: 앓 아아....

 호인: 다메데수웅

 쿠사카베 린: 계시스킬 랭크가 부족했다니

 Kaming (GM): 린은 령문 2회복해주시고

서자는 사라졌지만..

아직 하사시로 시의 초상현상은

 쿠사카베 린: 넵

 Kaming (GM): 끝나지않았습니다.

쥐들도 아직 건재..

서자는 분명 여러분들 손에 쓰러졌습니다만..

하사시로 시의 상황은 멈추기는 커녕..더욱 악화되고있습니다.

 호인: @그늘진 표정을 지으며 일행 곁으로 옵니다

"그리고보니 아라쉬 연안 공업지대라고 했는가?"

 아라쉬: "아아."

"거기에 있는 하수도 처리장이, 쥐들의 근거지야."

-

 호인: "그럼 빠르게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지..."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렇군..."



쿠사카베 린: "거기에 진짜 서자쌍이 있는 걸까...."

"구할 수 있는 걸까.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없애는게 빠를걸."



호인: "....구하지 못한다면...그것도 서자의 업이겠지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잘라 말하면서, 아키에게 연락을 넣습니다.



호인: "아니 나의 업이기도 하겠군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[초상현상.추가로 보고된 발생지점 있나?]



와타나베 아키: "여보세요? 세실리아씨? 먼저연락을 하시다니.."



호인: "그래 허나 나는 여전히 서자가 사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수 있을것이라고 믿는다"



와타나베 아키: "아직 추가발생지점은 없습니다만.. 온천쪽의 오염이 심각한거 같습니다."
"갑자기 멀쩡하던 물이 오염됐다고.."



호인: (아키 연락처 지우지 않았던가...



와타나베 아키: "아..그리고!"

@방금 추가소식이 들어온듯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(휴대폰이 아니다 염화다)



호인: (그렇군요



와타나베 아키: "방금전...수많은 마수(모노노케)들을 이끄는 누군가를 보았다고합니다."

정보2공개

"지금까지 알려진건..이정도네요"



Kaming (GM): 두둥!



쿠사카베 린: 두둥...



호인: 두둥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좋아. 그럼 이번에도 알아서 잘 나눠봐."



Kaming (GM): 생쥐모습의 누군가..

서자는 방금 해치웠는데....아니면 아직 살아있는걸까요..



호인: "나는 이 혼돈의 근원을 없애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"

"그것이 서자에게 닿을수 있는 길일것 같구나"

@연안공업지대B 선택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그럼 고민을 잠시...



쿠사카베 린: "나는 온천가에 가볼까... 거기에 사는 모노노케들에게 뭔가 들을 수 있을지도..." @캣파장...



호인: @캣파맨...

사실 저도 온천으로 가볼까 했지만..

아직 확정된게 없으니 호인맨은 공업지대로...

뭣하면 난입하져워^^



Kaming (GM): 캣파장..

;ㅅ;



호인: 'ㅅ'



아라쉬: 흠

호인이 공업지대로 가면

아라쉬 온천지대로

-

-



호인: 그럼 린과 아라쉬가 온천으로 확정

호인이 공업지대

세실리아는 미정

이렇게 되겠군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한숨을 내쉬고 공업지대로.

@이 조합은 싫다...



호인: 호인이를 별로 안좋아하는구나

ㅜㅜㅜ



Kaming (GM): ㅜㅜㅜ

수인조합..



쿠사카베 린: 수인!



Kaming (GM): 여러분은 다시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서로 나뉘어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.

=====

다음은

호로로로롤

짱이군요



호인: 연안공업지대B로 아무말 없이 달려나갑니다

초대는 세실리아

(영력 까먹었다

@머영



Kaming (GM): 참

종료시 영력회복

타이밍이었는데..

까먹었네여

영력 쓰신분들 굴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지금하지머)

rolling 2d6

(2 + 4)

= 6



호인: 확인 완료



쿠사카베 린: 23 46이었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32



쿠사카베 린: 그왕



호인: 1 3 4 5

혹시모르니 써놔야지



Kaming (GM): 아라쉬의 기세소실!



아라쉬: rolling 4d6

(6 + 1 + 4 + 1)

= 12



Kaming (GM): 스게



아라쉬: 버튼이 있어서

다행이야

어?

아니다

6 남아있으니까



Kaming (GM): 는 6있잖



아라쉬: 3개만 굴렸으면 됐으니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4322



아라쉬: 6 1 4 6

이 되는건가



Kaming (GM): 무슨소릿!

리롤이당



아라쉬: rolling 3d6

(6 + 5 + 3)

= 14

어예



Kaming (GM): ㄸ ㅅ

무튼

호인의 초대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4322



Kaming (GM): 토끼장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나갑니다



Kaming (GM): 넵

등장판정

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2d6

(4 + 5)

= 9

영력 4 > 5 로 교환

5322



Kaming (GM): 넵

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

=====

-연안공업지대B-

이곳에는 하시시로 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곳입니다.

아라쉬가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그곳에서 쥐들의 근거지라고 했었죠



호인: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길은 보일까요?



Kaming (GM): 네

하수처리장은 찾기 쉬울겁니다.

그리고....동시에 역한냄새도..



호인: 어우야;;

호인은 내색하지 않고 들어갑니다

표정은 조금 일그러지겠지만

서자가 벌여놓은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라면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뭐, 일이니까 합니다.



Kaming (GM): 사람은 아무도 없는듯..

조용하군요..

하지만...

벽..천장..바닥...

계속해서..작은 무언가들이

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군요..



Kaming (GM): 아마도 쥐겠지요..



호인: 근처에 뭔가 느껴지는게 있을까요?

이질적인 소리라던가



Kaming (GM): 쥐가 느껴집니다.

쥐의 소리가 들립니다.



호인: 흠터레스팅...



Kaming (GM): 호인이 내려갈수록...

쥐들의 소리는 더욱 많아지죠

건물은..
전기가 들어오지않는지..
매우 어둡네요.



호인: 왁



Kaming (GM): 이곳에서는
극도로 어두운 장소 [달성치]-2
달성치 페널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귀찮네."



호인: "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지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서자를 감정추가)
(했어야하는데)



Kaming (GM): 하지만 쥐들의 근거지는..이곳 어딘가일까요?



호인: (어우;;



Kaming (GM): 어둡고..복잡해서..
쥐들은 어디서든 느껴지고..
특정하기 어려울꺼같습니다.



호인: 으음 어디서든 느껴지는군요
추적을 해볼까...했지만
쥐들이 좀 더 많은 쪽은 특정하기 어려울까요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다 태워버리고 싶은데...."
@이럴땐 조금 아쉽군요.



Kaming (GM): 쥐들의 이동방향을 어느정도 추정해본다면 가능하겠네요 어렵겠지만
추적으로 하시나요?



호인: 추적 하겠습니다



Kaming (GM): 난이도는 16드립니다.
추적(민첩) 난이도 16



호인: $\text{rolling } 2d6+11-2$ 호랑이 센스

(2 + 3)+11-2

= 14

앗...아아...



Kaming (GM): 싯빠이



호인: 2를
4와 교환



Kaming (GM): 16성공

호인: @잠시 멈춰서 귀를 쫑긋 세워 온 신경을 소리에 집중합니다



Kaming (GM): 쥐들은...
여기서 좀더 중앙에..지하에서부터..
위로 올라오고있는것같네요...
사각사각사각
쥐들의 움직임이 들립니다.



호인: 감지한 지점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
킹왕짱 집중중이라 뒤에 있는 세실리아조차 신경을 쓰지 못하는 모습일겁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혀를 차면서 따라 가요. 빨리 끝내고 나가야지.



Kaming (GM): 어두운곳의 토끼를 두고..



호인: (아니야 세실리아를 믿기때문이야!



Kaming (GM): 못미덥..
무튼



호인: ㅠㅠ



Kaming (GM): 그렇게 호인이 집중해서 가면..
조금 큰 공터가나오고...
바닥의 감촉이 조금 달라집니다.
물렁..한? 물렁..한?
어두워서 잘 안보이지만..
이 주변의 엄청난 쥐들이 있다는게 느껴집니다.



Kaming (GM): 사각사각사각..
 짹짹..



호인: 물렁물렁....



Kaming (GM): 무언가..빛을 내는게 있으면 좋을텐데 말이죠..



호인: 악...빛이....빛이 필요해....!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호인 털을 잘라서 햇불이라도 만들까...



호인: 호인이 털이 어디에있다고;;
ㄷ ㄷ



Kaming (GM): 변신해봐 털좀 뽑게



호인: 코스트가 없어서 불가능...



Kaming (GM): 무튼...



호인: 모바일로
가능할까요(?)



쿠사카베 린: (머리털을 뽑아 태운다...)



Kaming (GM): 이곳이 근원지인거같습니다.
네



호인: 어떻게 폰이 라이트도 없을수가있어!



Kaming (GM): 모바일 조금이지만..



호인: 이거 서자한테 배웠어영



Kaming (GM): 보일꺼같네요.



호인: @어설픈게 휴대폰을 꺼내서 서자가 말해준 후웨이 앱을 켵니다



Kaming (GM):

그러면 호인과 세실리아 눈앞에 보이는건..

쥐...쥐...쥐...쥐...쥐.쥐쥐쥐쥐쥐쥐쥐쥐

(베이베이베이베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, 진짜아아아아...!"



Kaming (GM): 물컹한..

바닥의 감촉도..



호인: "..."

@조용히 쥐무리를 바라보며 서있습니다



Kaming (GM): 쥐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몸서리친다...부들부들...



호인: 은근슬쩍 세실리아의 앞을 가로막듯 섭니다



Kaming (GM): 그리고..

빛의 반응한듯..

일제히 움직임을 멈춘채..

여러분을 동시에 바라봅니다..

완전공포물..



호인: (이치노스케가 필요했어...

@범위기 없음



Kaming (GM): 그리고...

잘 보면..

그 쥐무리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저거, 생물체죠?



Kaming (GM): 중앙에

서자를 끌고갔던...검은 문..아니 게이트라고해야하나..

자그마하게..

있는데 그곳에서 쥐들이..하나 둘..셋..계속해서

나오고있네요..



쿠사카베 린: (오염된 성배....)



호인: @세실리아를 두고가긴 좀 뭐한데..

"나가있어도 괜찮다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영력결계 효과가 뭐야 정확하게?)



Kaming (GM): 세실리아는 저 게이트가...

그때의 마경의 입구와 비슷하게 생긴걸 알겠조
(정확히는 싸움할때)
(일반인들에게 피해안가게 싸울때 쓰는거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인식도 안당하잖아?)



Kaming (GM): (거울로 반전된 세계. 페르소나의 거울속 세계?)

(같은것)
(ㅇ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그럼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, 쥐는 일반 생물?)



Kaming (GM): 늑

쥐는 서자의 사역마같은
영력으로 이루어진것들..그래서
맞아도 피같은것은 안나고..
소멸되쥬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편법을 막는군 치사하게)



Kaming (GM): (^^)\



호인: (ㅋㅋㅋㅋ



Kaming (GM): 칭찬해줘도...헤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부쉬야겠네. 가능할까 모르겠지만..."



호인: "여차하면 물러나 있어도 좋다"



Kaming (GM): 그러면.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안부수면 계속 커질거야."



Kaming (GM): 여러분의 적의를 느끼고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경험담을 말하지



Kaming (GM): 감히 등지에 발을 들인 침입자를 제거하고자..



호인: "그렇다면 위험하겠군"



Kaming (GM): 주변이 요동칩니다..

벽...
바닥..
천장...
모두가 쥬..



호인: 게이트로 달려갈수 있을까요

어떻게 부수는지는 모르지만 가보면 뭐 알겠지!



Kaming (GM): 가능한 합니다..

호인: ;;



쥐: "찍찍찍찍끼ㄸ끼ㄸ끼ㄸ끼ㄸ끼ㄸ끼ㄸ!"

@우를르



호인: @힘겹게 쥐들의 파도를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

쥐: 세실리아도 깨물깨물



호인: 세실리아는 안돼

쥐: 하지만 따갑기만할뿐..

데미지는 들어오지않습니다.

하지만..

이대로라면..

쥐의 파도의 삼켜버릴지도 모르겠네요



호인: 역시 이곳은 보류인가;;

쥐: 이대로라면 세실리아의 귀가 깨물릴지도 몰라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발로 차면서 앞으로 나아가보죠.



호인: @게이트로...가고싶어ㅍㅍ



Kaming (GM): 게이트에 다가가면..

호인은 무언가의 튕겨나간듯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 정말 귀찮게 스리..."



Kaming (GM): 살짝 밀려납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결계....아니면 다른 무언가?"



호인: (법칙장해의 시간이로다



Kaming (GM): 그러하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식별해본다.



Kaming (GM): 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무엇이냐 너의 정체는...?



Kaming (GM): 난이도는 12/14입니다.



호인: 저도 해보겠습니다



Kaming (GM): 감지

판정입니다.

행운



호인: rolling 2d6+1 약

(2 + 5)+1

= 8

악!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왜 감지?)

(위화감을 감지한다, 인데 이상이 있는건 명백히 알고 있잖아)

(눈앞에 보이는데 당장)



Kaming (GM): 법칙장해 판정자체가 감지



호인: 2와 5를 교환!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
세실리아 판정치

체력 2 / 민첩 6 / 지성 10 / 정신 4 / 행운 3

@영문연소.



Kaming (GM): 스게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호인 태워서 2개 추가.



Kaming (GM): 등장판정 하셔도 되오



호인: 어 그럼 교환 하지 말까..



Kaming (GM): 다른사람들도



호인: @쥘떼는중



아라쉬: 다른 곳에 간줄 알았지만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행운판정

13



아라쉬: 사실은 이곳에 있었던것이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1한개를 3과 변경.



Kaming (GM): 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13>15



Kaming (GM): 아라쉬 등장?



아라쉬: rolling 2d6+4

(3 + 1)+4

= 8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2d6

(1 + 3)

= 4



Kaming (GM): 성공

령문 4소비라니.

그웬잇



호인: 아라쉬...등장 실패했어...!



Kaming (GM): 아무말없으면 등장판정은 난이도 8이다옹



호인: 오흥



Kaming (GM): 그렇다..



호인: 지성인가!



Kaming (GM): 이곳은..

쥘때들의 둥지였던것이다!

아라쉬는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법칙장해는 왜 하이퍼링크지)



Kaming (GM): 쥘의 파도를 뚫고 이곳에 등장하는군요

(그러게영)\

(복불해서 그런가봄)

켜도 안보이잖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이 정도 썸이야."

"난 간단하지만."

@돌아서면, 보이는건 호인과 아라쉬.



Kaming (GM): 근육파였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머리쓰는 것과는 관련 없는 둘이군요.



Kaming (GM): 그런고민을 하는사이



호인: "지시하면 필요한 일을 하겠다"



Kaming (GM): 쥘한마리가 세실리아의 귀를 깨물려고합니다!

깨물!



호인: 방호

잡아채용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찍찍!"

는

왜 너여

쥘: 쏘리



호인: 세실리아가 찍찍하고

쥘: "찍찍!"

@바둥바둥



호인: @핵 던져옴

쥘: "찍!"



호인: 호인 그래도

지성 3인디
 령문 연소하면
 가능성이 있어용!

쥐: 자



호인: 게다가 사람도 셋이니까

쥐: 여러분은 법칙장해를 마주했습니다.



호인: 난이도가 14

쥐: 어떻하시나요!



호인: 소거가 답이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12임)



호인: 아

필요인원수가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뭐어. 제거야 당연히 해야하는데."



호인: 3인이군

쥐: 쥐는 계속해서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소거로 하고...

쥐: 저 구멍..게이트..문..에서 나오고있군요.



쿠사카베 린: (지서이라니)

쥐: (린은 팝콘먹는거시다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대로 영력을 펼쳐서 문의 약점을 드러내보여요



쿠사카베 린: (다른 방향으로 출발한 거시다....)

쥐: "찍찍찍!"



호인: 호인은 서자를 빠이야 해서
 2d를 추가

쥐: 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지성판정

21

쥐: 성공



호인: rolling 4d6+3

(1 + 6 + 4 + 3)+3

= 17



Kaming (GM): 세실리아의 힘으로 게이트를 막던 결계가 해제되고



호인: rolling 2d6 령문소모

(2 + 2)

= 4



Kaming (GM): 호인도 성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5와 1을 변경. 영력 55 22로.
@그래도 성공임



Kaming (GM): 호인이나 아라쉬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겠네요!



호인: 세실리아에게 다가오는 쥐들을 최대한 거둬내줍니다
그리고 게이트에 냅다 주먹질합니다



아라쉬: 물리라면 말거랑!
화살 발싸!

-



호인: 는 아라쉬가먼저
호인은 그냥 세실리아한테 다가오는 쥐들을 몰아내죠
저리가



아라쉬: 뽕뽕
-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2인처리임?)



Kaming (GM): 3인
아라쉬도 지성판정!



호인: 아라쉬도
지성판정!



아라쉬: 지성은
특기가 아냐..
영문연소
할게요
물리초월에서
세실리아에 대한 감정 태우고



아라쉬: 다이스 3개 추가



Kaming (GM): 스게..
3개나



아라쉬: rolling 5d6+2

(4 + 6 + 4 + 3 + 1)+2

= 20



Kaming (GM): 성공
그러면..



아라쉬: rolling 3d6

(3 + 3 + 6)

= 12



Kaming (GM): 호인과 아라쉬 세실리아가 힘을 합쳐



아라쉬: 카가가각



Kaming (GM): 쥐들이 나오는 동지를..
닫는데 성공합니다!

쥐: "찍찍..!"

@쥐들은 그러면 황급히 여러분을 뒤로하고...

@여기저기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.



Kaming (GM): A:【령문】을 [강도] +2만큼 [회복]한다
강도는 3



호인: 5회복~



Kaming (GM): 령문회복해주시구



호인: 오오 풀 령문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풀이지



Kaming (GM): 게이트는 닫혔습니다.



호인: "고생했구나"
@몸을 툭툭 털니다



Kaming (GM): 하지만..그 게이트에서 느껴지던 악의는 굉장했죠..



쿠사카베 린: (게이트 오브 바빌론...)



Kaming (GM): 가만히 납두었다면..계속해서 쥐들을 소환했을겁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다음은...어디지..."



호인: "그리고보니 아라쉬 린이 온천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는가?"



Kaming (GM): 서자가 만든것은..분명 아닌듯하지만..
분명 서자를 돕는 무언가가 있는것 같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악마인가...뭐, 언제나처럼 처리할 뿐이지만...



호인: "...서자의 상실감을 교묘하게 이용하다니...용서할수 없다"



쿠사카베 린: (그러하다!)

(온천썸....인 거시다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나갑니다. 돌아서서.
@갈 곳이 있는것.



호인: @그렇게 둘과 함께 나가보도록하죠



Kaming (GM): 썸아웃>?



호인: 넵!



Kaming (GM): =====

다음은..

세짱이군요

하악



호인: 그러함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갈데가 딱히 없으니 온천행...



Kaming (GM): 초대는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뭔가 다른게 있을지도 모르지



Kaming (GM): 린은
소회복 처리 해주시구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뭐, 다들 나왔으니 전원이죠. 린은 원래 이리 향했고.



호인: 끼요오오오옷



쿠사카베 린: 넵
체력만큼 회복...



호인: rolling 2d6 등장

(3 + 1)

= 4

바꿀게 없다니



쿠사카베 린: 1...



Kaming (GM): 등장하시는분들은 등장판정



아라쉬: rolling 2d6+4

(6 + 1)+4

= 11

우오오옷

-



쿠사카베 린: 앓 휴식회복량 +아이템이 있군
꽤 회복한다



Kaming (GM): 소회복 스게



쿠사카베 린: 풀피는 아니지만
꽤 근사치...!



Kaming (GM): 린도 ㅈ 굴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

(1 + 2)

= 3

(오호...

1을 2랑 체인지

1을 가져간닷



Kaming (GM): 넵

=====

-하사시로 온천 앞-

입구부터

역한냄새가..

엄청납니다.



Kaming (GM): 마치 썩은 하수도 냄새라고 할까..



쿠사카베 린: "음..." @입을 가립니다



Kaming (GM): 주민들은 대피한듯..
보이지않군요.



호인: @서둘러 린장앞으로 다가옵니다
"린 괜찮으냐?"



쿠사카베 린: "괜찮아... 이 정도쯤 기합!" @하-압!



호인: "다행이구나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여기도 뭔가 있는거 같은데...."



쿠사카베 린: 그리고 미리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...
이치노스케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과연 하수도 만의 문제였을까.



호인: "그런듯하군..."



쿠사카베 린: 영문3소비로 고기방패를 준비



호인: @온천쪽을 올려다보네용



Kaming (GM): 온천은..물로된 모든것이 오염된듯..녹색의 빛과 역한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.



호인: "끔찍하군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것인지..."
@표정을 구기며 주변을 돌아다녀 봅시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늘어진다 빨리빨리 ㄱㄱ)



쿠사카베 린: 일단 접근해봐야겠네요



Kaming (GM): 이 주변의 물을 마신 생명체들은 모두 거품을 물고 쓰러져있고..
심지어 물고기들도 둥둥 떠다니는군요.



호인: (그걸 왜마셔ㅠㅠ



Kaming (GM): 목말랐나보죠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폐수 급이네..."



호인: @깨달음



Kaming (GM): 분명 오염된 원인이 있을겁니다.



쿠사카베 린: 탐색이겠군요



호인: 탐색은 구데기지만



쿠사카베 린: 행운판정이다아!



호인: 한번 해봐야지!



쿠사카베 린: 오염된 원인을 백안으로 찾는다!
닌자!



Kaming (GM): 좋습니다.
탐색 난이도 13드리죠



호인: rolling 2d6+1 대성공 해야해ㄱ

$$(6 + 5) + 1$$

$$= 12$$

아으!!



아라쉬: 린에게 말킨다



호인: 아으으— ㅇ으!!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+7

$$(5 + 4) + 7$$

$$= 16$$



호인: 3과 6을 교환



Kaming (GM): 성공
린은 자세히 살펴보니..
물의 흐름은 전부 이어져있습니다.



쿠사카베 린: Oh...?
어디로 이어지고 있을까요

-  **Kaming (GM):** 정보4공개
-  **쿠사카베 린:** 정보는 전원에게 공개합니다
"아무래도 이 흐름...."
"히사시로 저수지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!"
-  **호인:** "저수지라면..."
"알아냈으니 서둘러야겠구나"
-  **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** "산...."
-  **호인:** "그곳의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"
-  **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** @아 싫다....
"하수도에 산에 다음은 또 어디야...."
@귀찮다는 듯 중얼거리는군요
-  **Kaming (GM):** 카미가카리의 숙명
-  **쿠사카베 린:** 그것은 등산...
-  **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** @그럼 씬 단쵸. 더 얻을 것 없으니.
-  **호인:** 등산가카리
-  **쿠사카베 린:** 주능력판정치는 다음 1회 한정인거죠?
-  **Kaming (GM):** 네
-  **쿠사카베 린:** 압
-  **Kaming (GM):** 씬 닫습니다.
=====
- 뭔가 오늘따라 다들 힘들어보이시는데....
오늘은 일찍 끝낼까요?
-  **호인:** 으아니
-  **아라쉬:** 죄송합니다...
-  **호인:** 저는 더 할수 있는데~!
는 아라쉬 힘든가움
-  **Kaming (GM):** 본래 오늘은 12시에는 끝낼 예정이었기는 한데 힘드신듯하니 일찍 끝내볼까 합니다.
-  **호인:** 억
그렇군요
-  **쿠사카베 린:** 그렇군요
-  **Kaming (GM):** 다들 괜찮으신지...?
-  **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** 흠냥. 냥.
-  **호인:** ㅍㅍ
-  **쿠사카베 린:** 약기운은 빠졌습니당



호인: 조금 더 하고싶은 마음은 있지만
힘드신분 계시다면 저는 머
괜찮아용!



쿠사카베 린: 아침에도 이상하게 졸리더니, 체크해보니 졸릴수있다고 써있네.... 오노레 병원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뭐 다들 매너리즘에 빠질만도 하고.



쿠사카베 린: ;ㅂ;



호인: ㅠㅠ



Kaming (GM): 오늘은 뭔가 컨디션이 쪼오금 안좋으신듯하여 일찍 닫겠습니다!



호인: 다들 고생하셨습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수고하셨습니다



아라쉬: 고생하셨습니다



Kaming (GM): 고생하셨습니다



호인: 으음...좀더 열심히RP를 할걸 그랬군여



아라쉬: 저때문에 늦게 시작했는데...

-



Kaming (GM): 그러면 다음시간에 뵈시당
'ㅂ'



호인: 네 안녕히ㅠㅠ



Altr: 콤보: 파멸의 손길

컨센+사신의 눈동자

RC / 메이저 / 대결 / 단독 / 시야 / 5 / -

다이스 2개, 명중 + 10, 크리 7, 공격 명중시 대상이 다음 공격에 입는 데미지 +5d10/+6d10/+7d10, 썬 종료 또는 피격될 때까지 지속, 이 공격으로 인한 HP데미지 없음



Kaming (GM): 리포링 코로스..

핫..!

리포님이 오셨다



리포: 핫....

살인계획현장을



Kaming (GM): 나의 계획이 들통나버렸



리포: 목격한 피해자는



Kaming (GM): 이렇게 된이상

지금 코로스



리포: 싸늘한 시트로 발견되었습니다

자 오염된 저주지로 가서

방사능으로 변이된 캣파를 쓰러뜨리고

진 최종보스였던 쿄코를 쓰러뜨리고

사랑과 정의의 힘을 퍼뜨려서
펭귄엔딩을 맞이하는 거다



악동양반: ...?



리포: 배가 고프니
텐션이 오르는군
밥... 밥을 먹자



아라쉬: 샤이니 데이즈



리포: 숙떡 안에 팔있고 콩고물 묻어있는
정체불명 떡
마이짱...



악동양반: 흠...



아라쉬: 만쥬...?
오하기?<



리포: 그냥 지나가다 보인 떡집 들어가서 산 거라
이름 모르겠네용



악동양반: 아 이브금
갖고싶은데(?)
어디 브금인가요?



Kaming (GM): 페이트!



악동양반: 페이트 브금이 워낙 광범위한지라..
.저는 페이트 제로만 봤거든요



Kaming (GM): 잠시...
장실점!
급..!
X



리포: 음성이
나오는건감
아 최대한 올리니 들리네용
타이틀보면
서번트 나올 때 나오는 건감!



Altr: 페스나 기사왕의 긍지
kishiou no hokori



악동양반: 어떻게 제목까지 아시는거지!
는 감사합니다!
히히 이거 쓰고싶은 장면이 있어서요



아라쉬: 스텔라각...



호인: 어흥



아라쉬: 마치 밤가이를 쓰는



호인: 무서운 호인이다



아라쉬: 가이를



호인: 어흥!



아라쉬: 따라하듯
스텔라각을 잡는 아라쉬..



리포: 기도문을 외우고



호인: 아라쉬 죽지마ㅠㅠ



리포: 빵아!



호인: 엘자는 어떻게 하려고!!



쿠사카베 린: 명령은 죽지 않아
그저 좌로 돌아갈 뿐...



호인: 그렇군요
@납득



아라쉬: 이미 죽은 사람이라...



쿠사카베 린: 경우에 따라선 기억이 승계되지 않는 것도 있는 모양이긴한데, 이건 특이사항인 FGO에만 해당할 수도 있으니 패스
사항->상태
길가메시... 당신은 모든 루트에서 패배가 약속되어있어요!



아라쉬: 원래는 기억 못하는게 정상이지만 모든 작가들이 그걸 무시하는...
설마하던 나스조차도



쿠사카베 린: 애니메이션 연출에도
나스가 한 마디씩 할텐데
기억하는 듯한 묘사들 넣는 거 보면...



아라쉬: 아르토리아만 예외로
풀로 기억할 수 있고
나머지는 자기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은 느낌
이라는데



쿠사카베 린: 아마쿠사 - 세미라미스(...)
잔느... 왜 지크군을 찾는거야!
네로 브라이드도 원래라면 네로의 복장 체인지 정도인데, 자비즈를 만나지 않은 버전...이라고...



아라쉬: 오히려
네로는
갑자기 설정 충실해져서
폐제기억을 잃어버린..
폐제란다
폐액



쿠사카베 린: 폐제에 네로 뜨면 그건 음...
수마 없애지 못 해서 쫌...



아라쉬: 관련 MAD 있었어요<
그렇죠



쿠사카베 린: 아무래도 한방이 없는 네로니...



아라쉬: 캐스터로 소환되야 더 썬
세이버



쿠사카베 린: 일단 검이 벨버 관련이라는 얘기가 언급되긴 하는데
설마 세이버 비너스 떡밥은 아니겠지
그것만큼은 제발....



아라쉬: 나스가 자기 일기에
네로 브라이드는
FGO에 소환된 쪽이면
구다쪽에 올인이라고..



쿠사카베 린: 이제는 떡밥살포로 변질된
일기장...
아니 일기장에 설정 풀지 말아주세요



아라쉬: 나스..



쿠사카베 린: 알아야될 정보매체가 너무 많잖아!
작가들이 트위터에 푸는 것도 버티기 힘들엉!



아라쉬: 예전에
타케보우키에 썼던 페엑->페엑텔



쿠사카베 린: 설정이 업데이트되니, 구작만으론 현재설정을 못 따라가고 신작만 접해선 모르는 얘기가 꼭하나
씩 나온다...!



아라쉬: 소셜..



쿠사카베 린: 페엑 제로라고 불리던 그거군요



아라쉬: 지금 라스트 앵콜 스토리 이상해진게
나스 탓이라는 소문도 있어서..



쿠사카베 린: 일단 스토리라인은 느껴지긴하는데
음...



아라쉬: 원래는 그 페엑제로를
애니화 하려고 했었는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아니



아라쉬: 나스가 그거 관련해서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공중에 띄워야 하는 임무를



아라쉬: 발언하는 바람에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너무써서 어퍼가 다 죽여버리니 달성못해
대체뭘



쿠사카베 린: 바로 지워졌다 그랬던가요?



아라쉬: 네
그뒤에 나스가 샤프트에



Kaming (GM): 크헉..
저 왔습니다



아라쉬: 배상금 물었다고..



Kaming (GM): 죄송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흠 근데 그건 그것대로 반향이 컸을 듯



Kaming (GM): 배가..갑자기



아라쉬: 오셨군요<

-



Kaming (GM): 물론



호인: 그리고 튀어나오는 체스트버스터...



쿠사카베 린: 그때 타마모팬들이 엑텔에서 왜 타마모 포지션이 저렇냐고



Kaming (GM): 꽤번 하고왔지만



호인: 끼에에에에엑



쿠사카베 린: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는데



Kaming (GM): 늦어버렸군요



쿠사카베 린: 엑텔제로...



호인: 갠차나요!



쿠사카베 린: 진짜서브히로인이 되어버렸어



Kaming (GM): 자 그러면
출책!
책책



호인: 어흥!



쿠사카베 린: 영주를 통해 명한다!



호인: 잡아먹을거다!



아라쉬: ノ



쿠사카베 린: 자해해라 랜서! (번쩍)
표현이 참 특이한게



호인: 헉헉 왈왈 켅켅!! 으르르르르르

쿠사카베 린: 자해=자결이니

표현을 돌려쓰는건감

'ㅅ'

국어 공부 넘나 어려운 것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□



아라쉬: 자신을 해하다 라고 쓰고 자해...

누구는 자결이라고 명령하기도 하는.

-



Kaming (GM): 그러면 다들 온듯하니

시작해볼까요?



쿠사카베 린: 넵



아라쉬: 아이-



호인: 하압



Kaming (GM): =====

여러분들은

하사시로 시의 온천의 오염이

저수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.

확인을 위해 여러분들은 저수지로 향하지요.

-전원참가입니다-



Kaming (GM): ----

-하사시로 저수지-

저수지에 도착하자 저수지의 물이 녹조가 낀것처럼 탁하고 역한냄새가 납니다.



아라쉬: 머플러를 입가로 올리면서 얼굴을 찌푸리겠네요



Kaming (GM): 주변에도 마치 독기처럼 안개가 쳐져있구요.



호인: @어질한 머리를 부여잡고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



Kaming (GM): 여러분들은 조금 역한정도이지만

일반인이라면..



아라쉬: "단순한 부패가스는 아닌가..."



Kaming (GM): 중독되어 쓰러져도 이상하지않을만큼의 독기입니다.



아라쉬: -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브에에....토할거같아....



호인: "서자가 손댄 힘이 이런 파국을 불러올줄이야"



쿠사카베 린: "음...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!"



호인: 독기와 오염된 물 외에 뭐가 보이나요/



쿠사카베 린: @콧물 질질



호인: ?



Kaming (GM): 호인이 살펴보면..
독기의 안개속에서.. 멀쩡히 서있는 사람이 있는것같습니다.



아라쉬: "저건..."



Kaming (GM): (린 화생방훈련하는줄)



호인: @먼저 다가가 볼게요



쿠사카베 린: (방독면 벗지 않습니다!)



호인: (히익...악몽이 떠오른다



쿠사카베 린: (히익 방독면 냄새나 히이이)



Kaming (GM): (목소리 크게 냅니다!)

무튼

호인이 다가서면...



아라쉬: 끼기직... 하고 활에 화살을 걸고 보이는 사람을 겨눕니다.

-



쿠사카베 료우: "이거이거 너무 심했을지도 모르겠네요"



호인: "너는...!!"



쿠사카베 료우: @하고 혼잣말하며

"오야?"

@그러면 호인을 눈치챈듯 뒤돌아보죠



호인: @경계합니다

"그날 신도를 데려간 무리에 있던 녀석이로군!"



쿠사카베 린: "여기 있었구나...!" @찌릿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오랜만이군요, 구.총.수.대.행."



쿠사카베 료우: @종이우산을 펼친채 여유로운 웃음으로 여러분을 반깁니다.

"어라어라 벌써 이곳까지 오신겁니까"

"꽤 빠르네요"



호인: "대체 원하는게 무엇이냐!"



이치노스케: [오랏줄을 받아라 눈꺼풀귀신!]



호인: "성당기사들에 이어 서자에게까지 역한 기운을 덮어씌우다니!"



쿠사카베 료우: "흠 저 그렇게나 나쁜놈으로 보이는걸까요"

@자칫 슬픈듯한 목소리지만



쿠사카베 린: "자각 없는 척 그만 두시지!"



쿠사카베 료우: @얼굴은 변함없다.



쿠사카베 린: @우웨엑

@귀를 씻어내는 제스처

호인: "무슨말이 하고싶으냐"

"이 일은 너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테냐!"



쿠사카베 료우: "글썄요 제가 원하는거라 세계평화?"



호인: "그럼 일이 이 지경이 될때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것은 어째서지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세계평화라아....



호인: "총수 대행이라는 자가 흠어진 신살자들을 규합하지는 못할망정 혼란을 방관하다니!"



쿠사카베 료우: "음...말하기 곤란한데...."

"말하자면 그거예요 그거"

"필요에 의한 희생?"



쿠사카베 린: ".....!" @부르르



아라쉬: "그건 타인에 의해 강요되는게 아니야."

"어떤 목적이든, 그런 희생은 정당화 되지 못해."

"과거의 사람들이 깨달은 사실을."

"현대에 사는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건가?"

-



쿠사카베 료우: "뭐 그렇겠조 잘나신 여러분께서는"@으쓱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흠.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타인을 희생시키던 건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...



쿠사카베 료우: "뭐 그럼 여기까지 도달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하죠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방향성이 다르다, 라고 생각해요.



쿠사카베 린: "모두들 진지하게 듣지 말자고! 어차피 다 거짓부렁에 시간끌기일거야"



쿠사카베 료우: "궁금한게 있다면 뭐든 물어보세요. 대답해드리죠"

@선심쓴다는듯



호인: "네놈과 말장난 할 시간따윈 없다!!"

"서자와 성당기사들에게 무슨짓을 한것이냐!"



쿠사카베 료우: "에에~ 사람이 모처럼 선심을 쓰는건데"

"그건가요. 음 소원을 이루어줬죠"



호인: "소원!?"



쿠사카베 료우: "서자씨는 누군가를 지키기위한 힘을 원해서...힘을 드렸고"

"성당기사단의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동료를 생각해서 다시 만나게 해드렸고"



쿠사카베 린: "거짓말! 정말로 그런 끔찍한 힘 원했을리 없잖아!"



쿠사카베 료우: "뭐 도중에 말을 안들어서 조금 방향이 틀려지신분도 있지만"



아라쉬: "악신과 손을 잡고, 영혼을 더럽힌것이 소원을 이룬것이라고 하는건가."

"15년전. 완전히 치워버리지 못한 그것이 남긴 흉터인가."



쿠사카베 료우: "자 그럼 질문은 끝인가요?"



아라쉬: 시위에 걸린 화살을 놓습니다

-

-  **쿠사카베 료우:** 그러면 료우의 가슴에 정확히 박히더니...
이내 료우는 종이인형이 되어 흩어집니다.
그리고 독기의 안개속에서
료우의 목소리가들리는군요
"아 너무해요. 갑자기 공격이라니"
"진짜였으면 어떻게했었어요!"
-  **호인:** "네 이놈...!!"
-  **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** @흐암.
-  **쿠사카베 료우:** "그리고 또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독기와 오염의 장본인은 바로 저랍니다~"
"조금 너무 심해버렸지만 뭐 상관없겠죠"
-  **쿠사카베 린:** "상관 없을리가 없잖아!"
"실눈으론 저수지 물골도 안 보이냐보네!"
@베에에령
-  **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** "언젠가 다시 보러 갈테니까 시간 비워두라구."
-  **쿠사카베 료우:** "이걸로 영맥의 주도권을 가지고있는 주인은 약화될꺼고..곧 영핵은 우리것이 되겠죠"
"앗 참 그리고 주변의 모노노케들 '먹이'로 쓸 생각이었는데 독기의 영향으로 흥폭화해서... 선물로 남.겨.놓.고.가.요"
-  **호인:** "네놈의 잘난 이상을 나락으로 처박아주겠다...!!!"
-  **쿠사카베 료우:** 그러면 주변의 독기의 안개에서..붉게 빛나는 눈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.
-  **호인:** @이를 갈며 그렇게 말하곤 안개속에서 빛나는 눈들에게 시선을 옮깁니다
-  **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** @귀찮은 일만...
-  **쿠사카베 린:** @뭐지...!?
-  **쿠사카베 료우:** 독기의 안개주변을 가득채운 붉은 눈..그리고 느껴지는 영력반응..
이주변의 모노노케들인것같습니다.
-  **아라쉬:** "모노노케의 진정과 독기의 처리가 급선무겠네."
"목소리는 더이상 신경쓰지말고. 할일을 하자."
-  **호인:** "그러지"
-  **쿠사카베 료우:** "그럼 행운을 빌게요!"
-  **쿠사카베 린:** "저 실눈의 페이스에 휘말리는 건 이제 사양이니깐!" @뽕뽕
-  **쿠사카베 료우:** 하하하!
하는 소리와 함께 료우의 목소리는 멀어집니다.
-  **Kaming (GM):** 주변에서 느껴지는 반응은..
계속해서 많아집니다..
10...20..50...100...
-  **호인:** 100!?
-  **아라쉬:** "일일이 상대하지 말고. 독기를 먼저 정화할 수 밖에 없겠어."



호인: @일행이 있는곳으로 도약합니다



서자[흑화]: 그리고 독기속에서 걸어나오는
서자



쿠사카베 린: (왓구나 서자 얼터....)



호인: (서자 얼터라닉ㅋㅋㅋ)



서자[흑화]: "어서와.."



아라쉬: (버서커니까 1.5배로 맞음)



서자[흑화]: 역시 죽지않고 살아있었군요.



호인: "...이게 네가 원하는것이냐!"

"봐라!"

"이게 네가 말하는 지키는 힘인가!"



서자[흑화]: "글쎄..지금은 모르겠어..하지만 단지..이번에도 너는 지킬 수 있을까?"

"이 상황에서도 동료들..소중한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?"

"나는 네가 너무 부러워...동료들과 같이...아아 질투나 질투나..질투나!"

"그러니 부실꺼야"

"네가 지키는것들은..전부..다"



호인: "뭘 모르는구나 서자 내가 그들을 지키는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것이다"



쿠사카베 린: "역시 제 정신이 아니야..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지...?" @불안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죽이는게 빠르다니까."

@한숨.



서자[흑화]: "자..그러면 지켜봐. 네 소중한 동료들을"



호인: "스스로의 힘만을 맹신한다면 자만에 빠져 깨달음으로 가는 길엔 도달할수 없다!"

"얼마든지 와라!"



서자[흑화]: @그렇게 서자가 손짓하자....

붉은눈빛들이 일제히 움직이기..



호인: "세실리아 나는 그래도 믿고싶다 내 억지여도 상관없으나 그래도 난 서자를 믿고있기에..."

"어떻게든 서자를 구할것이다"



엘자: "익~스플로전!"



Kaming (GM): 갑자기 거대한 폭발과 함께 주변의 독기와 붉은 눈빛들을 날려버립니다.



아라쉬: "뭣!?"



호인: "이것은!!"



쿠사카베 린: "무, 무슨 일이야!?"



엘자: "위기의 순간의 마스터 등장!"



아라쉬: "마스터!? 왜 여기에!?"

쿠사카베 린: (영주3획으로 보구사용을 강제하러)

(왔어...)



호인: "마스터?"



엘자: "그것보다 그 꺼림직한 녀석부터 정리하라구! 주변은 내가 맡을테니"



서자[흑화]: "쓸데없는방해가..상관없어 전부 부셔버릴꺼야!"



호인: "협력에 감사한다!!"



아라쉬: "정말이지... 사람을 놀라게 하고...!"



Kaming (GM): 그러면
전투입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에에엣!?" @아라쉬와 엘자를 번갈아보며
@당황스럽지만! 도움은 감사땡규!



호인: "금방 정신 차리게 해주마 서자!"
"눈을 떴을때는 다른 십이지들에게 호통을 돌고 있을것이야!"
@전투준비



Kaming (GM): 갑작스런 누군가의 도움으로
많은 수의 모노노케들이 줄었습니다.
(으억 엘자 부가설명 왜 아무것도 안적혀있어)
(설마 저장안하고 닫기눌렀었나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절레절레)



호인: (억ㅋㅋㅋ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그래서 재 누구야)



Kaming (GM): (끔..)



호인: (아라쉬 마스터윳
(무려 마법사입니다



Kaming (GM): (간단히 말하면 아라쉬 소환한 마술협회 마술사예요)
(마법사)



쿠사카베 린: (마법사 종족!)



Kaming (GM): 행동치 적어주시고..
바로 전투 들어가겠습니다
각자 영력상태 아시죠?



쿠사카베 린: 넵넵



호인: 넵 미리 토큰에 적어놨습니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552
5522



Kaming (GM): 넵
린은 1346



호인: 1256



Kaming (GM): 자 그러면
1R 개시



호인: 진 결정장착
개시/ 사용자 / 사용자 / 5

특수효과. 대상은 한번의 전투 중 [장갑]과 [결계]에 +8의 수정을 받는다. 이 《텔런트》는 [개시]를 소비하지 않는다.



엘자: "나머지는 나에게 맡겨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22 사용. 전투력증강, 대상은 아라쉬.



엘자: 라며 주변의 쥐들을 상대하는 엘자



아라쉬: "알았으니까. 조심하라고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전투력 증강

개시 / 7매스 / 1체 / 같은 눈

특수효과. 전투중 대상은 이하의 효과 중 1개 취득

1. 물리랭크 +1

2. 마법랭크 +1



엘자: 펑펑!



아라쉬: 1을 선택



호인: "하압!!"



쿠사카베 린: (몬스터 소환! 나와라 랭크5, 이치노스케!)
영문3소비



엘자: 강렬한 폭음과 함께 섬광이 터지는군요



Kaming (GM): 넵



아라쉬: 3을 써서 기세 소실
설마 서자도 은밀 해제를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귀찮은 걸 대신 해주고 있으니 뭐, 나름 고맙긴 합니다만.



호인: 결정장착 최고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나올거면 진작에 나오지 그랬어, 하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군요



아라쉬: (아, 아마 방금 도착한걸거야..)



호인: (영창에 시간이 걸렸을지도



아라쉬: (영국에서..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사정이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, 그런건 내 알바가 아냐!



호인: (흠터레스팅

쿠사카베 린: (가능하다면 그래)



서자[흑화]: 자 그러면..



쿠사카베 린: (원작대로 바이크로 달려들어서 폭발...)
(※아님)



서자[흑화]: "지켜봐..너희들의 동료를"

@초.상.포.탄!

《초상포탄》

타이밍:상시 거리:사용자

대상:사용자 코스트:없음

개요:엄청난 괴력으로 들어올린다, 또는 초상능력을 이용하여 부유시켜 상대를 향해 고속으로 투가한다.



서자[흑화]: 효과:대상은 매 턴 1회만, 인접한 1매스에 존재하는 「[명칭xn]의 모노노케」1체, 또는 [장애물]하나를 소멸시킴으로써, [거리:7매스/대상:1체]에 [효과 타입:물리공격/ 물리데미지:2d+「【명중】의 【고정치】x2」]의 [특수공격]을 실행한다. 소멸한 모노노케는 《재앙을 부르는 힘》으로 소환할수 없지만, PC는 경험치【령문】[소재]를 획득가능



호인: 왓더헬



서자[흑화]: 절편으로 옆에 있던 박혀있던 거대한 돌을 힘감습니다.

그리고..

이치노스케에게 던지정



호인: (괜찮아 이치노스케는 지킬필요가 없어(?))



서자[흑화]: (저거 에라타 나있는데 거리:명중치만큼이에양)



호인: (!?)



쿠사카베 린: 왓?

와아아앗?

에엣



이치노스케: 히도이



서자[흑화]: 19매스임



이치노스케: 안마리다요...

2d+38데미지라고요?

차라리 죽여...



서자[흑화]: 특수공격이라



이치노스케: 사-악



서자[흑화]: 해봣자

이치노스케는 못피하는군



이치노스케: 간파도 수동이엇군



서자[흑화]: 네



이치노스케: 무리데스



서자[흑화]: 그러면



호인: 무리데수웅



서자[흑화]: rolling 2d6+38

(3 + 4)+38

= 45

45물리데미지



이치노스케: 물리공격이니 장갑은 10!



서자[흑화]: 거대한 돌이 엄청난 속도로
이치노스케를 덮칩니다.
광!



이치노스케: [퍼블러스 맥스!] @토혈



쿠사카베 린: "이치노스케!"



서자[흑화]: 자 그러면
다시 서자턴



호인: "확실히 강해졌구나 서자"



이치노스케: [네버... 네버 투척...]



호인: @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서자를 묵묵히 노려봅니당



서자[흑화]: 간이이동 한칸

[휘몰아치기] 물리공격/10메스/범위 대상에게 [형상: 둔기], 5d+24의 물리 대미지. 데미지 적용후 [전도]상태이상 부여.

대상 린

"하하하!"

"모두 부셔버릴꺼야"

서자의 절편이



쿠사카베 린: (엿)
(싫어엿)



서자[흑화]: 린의 중심으로



호인: 아니...
범위면;;



서자[흑화]: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앗 잠깐 제가 맞으면 주변 스플)
(가악)



서자[흑화]: 안맞아도



쿠사카베 린: (아니안맞아도 스플이잖아)



서자[흑화]: 전원 회피판정

쿠사카베 린: (가아아악)



(명중19죠?)



서자[흑화]: 명중 19



아라쉬: 회피 선언!



호인: rolling 2d6+11

(3 + 1)+11

= 15



서자[흑화]: 호인은 아닌텐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일단 서자랑 쿠사카베 감정 박고...



호인: 아 호인은
아니군요



서자[흑화]: 뭐 뵈하면
이치노스케
방패있으니..



쿠사카베 린: 아아
그방법이 있었군



서자[흑화]: 넘모 사기



쿠사카베 린: 고기방패!



아라쉬: 명중 회피 동일치면
명중 우선이었죠?



쿠사카베 린: 냥



아라쉬: 감정 태워야겠네



쿠사카베 린: 어차피 저 거리에서
쥐들은 공격 못하니까
고기방패쓰죠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그냥 인형을 태워..)



쿠사카베 린: 데미지 산출 후
고기방패쓸게음
영문 아끼자!



아라쉬: 전체 커버링이 되는...?



서자[흑화]: ㄱ ㄹ ㄷ
그러면 회피 굴



아라쉬: 스게에!

rolling 2d6+9

$$(4 + 2) + 9$$

$$= 15$$



쿠사카베 린: 네 무슨공격이든 인형 한 채로 변경



아라쉬: 흡수탱이라니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+3

$$(6 + 3) + 3$$

$$= 12$$



아라쉬: 유능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카미가카리의 정신나간 밸런싱 잘 보았습니다)



쿠사카베 린: 1과 3을 변경!

3 획득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회피판정

8



호인: (허허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펄블 영력 5 > 1



쿠사카베 린: 물론 회피는 실패엿



서자[흑화]: rolling 5d+24

5

= 5

rolling 5d6+24

(2 + 4 + 6 + 6 + 2) + 24

= 44

44데미지



쿠사카베 린: <영기흡인>발동!



서자[흑화]: 넵

영력 소모해주시고



이치노스케: [나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랏!]

영력 4 소모!



서자[흑화]: 서자의 채찍이 이치노스케를 맞춘순간...

더이상 채찍은 움직이지 못하고 막히는군요.

"...."



쿠사카베 린: "이치노스케, 프렌드 실드 모드!"



서자[흑화]: "또 또....!"

《질투》:상시/사용자/사용자

누군가가 자신의 공격의 대하여 방어텔런트를 사용 할 경우 그 전투동안 데미지산출시 +1d(최대 4d)증가한다.
전투시 1회 방어텔런트를 무시한다.



쿠사카베 린: (하지만 이 턴 후 흠어지면 돼...!)



서자[흑화]: 서자의 검은 이글거림이 더욱심해집니다.

다음턴

아라쉬

이치노스케는 신다



쿠사카베 린: 앵앵?

아 아냐

53이나 남았는걸!



아라쉬: 그럼...



호인: (이치노스케 열일하는구나



쿠사카베 린: 장갑도 10니깐

34데미지!



Kaming (GM): 53이나 남았을리강?



아라쉬: 준비 소모해서 한칸 이동하는것도 은밀 효과 풀리나요?



Kaming (GM): nope



아라쉬: 그럼 그걸로 한칸 이동



쿠사카베 린: 체력이 88인 걸요 'ㄹ'!



Kaming (GM): 간이이동말하는거여?



아라쉬: 네



Kaming (GM): 초상포탄

맞았잖



쿠사카베 린: 아까 그 특수공격 데미지가

45였으니 장갑빼서 35

이번 공격 데미지 44에서 장갑빼면 34



Kaming (GM): 아슬하게 사네



쿠사카베 린: 그러하닷!

지방덩어리라

찰집니다



Kaming (GM): 좋습니다

적용해주시구
아라쉬 계속



아라쉬: 네
그러면



호인: 히익 이치노스케 체력 괴물이야



아라쉬: 서자
회피가 몇이지..



Kaming (GM): 19



아라쉬: 은밀 효과로 +2 들어간다고 치면...
8 띄워야 하나.



쿠사카베 린: (※호인도 못 지 않게 체력괴물이다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갯갬 카미가카리 밸런싱 수준)



아라쉬: 그럼
특수로 양식
아니다



Kaming (GM): (갯갬인 이유는 룰 이름에 신이 들어가서..읍읍)



아라쉬: 특수로 역사를 바꾼 일격



호인: (엡ㅋㅋ)



아라쉬: 그리고 공격으로 영웅혼의 일격
3과 5를 쓸게요



Kaming (GM): 넵



아라쉬: 대상은 서자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dx 우로도 사기급인건 맞는데 이정도로 미치진 않았어...)



Kaming (GM): 넵
명중률!



아라쉬: rolling 2d6+11

(1 + 5)+11

= 17

1을



서자[흑화]: 싯빠이



아라쉬: 6으로 변경



호인: (폭식하는 뱀
나뿔
성공



아라쉬: 6을 아낀건



쿠사카베 린: (레니게이드 디졸버!)



아라쉬: 이런 이유다



서자[흑화]: 데미지 주시죠



아라쉬: 전투의 극의로 +10

살기심오로 +2

20

역사를 바꾼 일격으로 +8



서자[흑화]: 고정딜깡패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전투력증강 +1랭)



호인: (최고다



아라쉬: 영웅혼의 일격으로 +1랭

rolling 2d6*3+40

(1 + 3) * 3 + 40

= 52

49



서자[흑화]: <절편방어> 방어/사용자/사용자

데미지감소시 사용. 대상의 공격이 [사격]공격이었을 경우 데미지를 2d+9만큼 감소한다.



아라쉬: 물리 데미지



서자[흑화]: rolling 2d6+9

(5 + 5) + 9

= 19



아라쉬: 찢



서자[흑화]: 19데미감



아라쉬: 거의 최대체를



서자[흑화]: +장갑6

25데미감

24데미지받습니다.



아라쉬: (끼기각)

아



서자[흑화]: 아라쉬의 화살을



아라쉬: 죄송 은밀 효과로 +5도 있으니

29데미지네요<



서자[흑화]: 절편으로 쳐내어
어느정도..약화시킵니다!
"귀찮게..!"



쿠사카베 린: (데미지 너무 무서운 것)
(사격공격 대응인가...)



서자[흑화]: 다음



쿠사카베 린: (반쯤 전투지대 공격도 있고)



서자[흑화]: 린
치노스케[



쿠사카베 린: (방어 탠런트도 남발할 순 없군...)
네넹



이치노스케: 이치노스케 통상이동
아 전투이동전투이동
헛갈!
그리고
120mm포
대상은 서자입니다



이치노스케: 사거리는 10마스
명중고정치 21



서자[흑화]: 넵
명중
데미지 주시죠



호인: (이치노스케의 강력한 포가 불을 뿜는다!)



이치노스케: 속성 화염이므로 약점노려서 +1d

rolling 7d6+36

(4 + 4 + 6 + 4 + 5 + 6 + 2)+36

= 67



서자[흑화]: 스게



이치노스케: 물리속성이니까
사격공격방어론 안 될걸!



서자[흑화]: 절편방어 쓰죠
사격일텐데
그거



이치노스케: 어라
잘못옳겼나!



서자[흑화]: [속성: 화염/형태: 사격]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아니 상식적으로 기관포 쏘는데 그게 사격이 아니면...좀....)
(좀 뭔가 많이 이상하다)



호인: (그러하다



서자[흑화]: 사격이라 적혀있는거시다.



아라쉬: (사실 탄환이 영력이었던거임)



서자[흑화]: ㅋㅋ



이치노스케: (아아 저 물리는 마법이랑 비교하는거고)
(저 형태가 중요한 거였다!)
대충 옮겼더니



서자[흑화]: 넵



이치노스케: 데헛페로



서자[흑화]: rolling 2d6+9

(1 + 1)+9

= 11

나뿔

펄블

ㅋㅋㅋㅋ



이치노스케: 첫줄만 보고 옮긴자의패해
앗아아



호인: 와웁ㅋㅋㅋㅋ



서자[흑화]: 장갑까지해서
17데미스



이치노스케: 50데미지인가...



서자[흑화]: 절편으로 자신을 감싸 방어막처럼 두르지만..
옷여기저기가 그을리는군요



이치노스케: [사격이라고 생각했나? 유감 물리공격/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]
범위공격이니까



서자[흑화]: "콧...!"



이치노스케: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도...앗



서자[흑화]: 펑!



이치노스케: 펑 터졌군
120mm포 슛고이
턴 종료



쿠사카베 린: 준비- 간이이동합니다

앞으로 한 칸!

그냥 평타 간닷!

대상은 서자!



서자[흑화]: 넵

저항은 17



쿠사카베 린: 발동 롤!

rolling 2d6+11

(1 + 6)+11

= 18



서자[흑화]: 명중



쿠사카베 린: 데미지를!

rolling 2d6*2+13

(5 + 4)*2+13

= 31

23마법데미지입니다



서자[흑화]: 결계 6

17데미지!



쿠사카베 린: "짜통테이저건으로 이게 한계인가...!" @크웃

기절 MISS



서자[흑화]: "크..크크크하하! 아파..강해강해 아아 너무 부러워 너희들의 그 강함이!"

서자의 눈이 붉게타오릅니다!

다음이군요

세실리아짬응

하왈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흠...)



호인: (이치노스케가 다죽어가는데

(고워치유 쓰시는게?



쿠사카베 린: 고-기방패

방어 남발하기가 쯤 무섭긴 하네요

탱커 만드시 죽이는 탤런트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흠....

@간이이동

@고워치유 이치노스케

@영력 1써서..

고위치유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광휘치유, 치유 마술의 달인 효과 적용중.

공격 / 전투지대 / 1체 / 6, 홀

마법공격, 대상의 생명력 랭크3 마법데미지 회복, 효과 적용시 영력 1개의 값 +-1(선택), 임의로 고위치유 1회 사용 가능, 추가 고위 치유 코스트 통상 소비

명중: 15

회복량: 34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하고 한번더, 고위치유 이치노스케.

고위치유

광휘치유, 치유 마술의 달인 효과 적용중.

공격 / 전투지대 / 1체 / 6, 홀

마법공격, 대상의 생명력 랭크3 마법데미지 회복, 효과 적용시 영력 1개의 값 +-1(선택), 임의로 고위치유 1회 사용 가능, 추가 고위 치유 코스트 통상 소비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
명중: 21

회복량: 28

@34+28 66힐



쿠사카베 린: 오...



이치노스케: [힘이 흘러넘쳤.....] hp+66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이번엔...."

@이번엔 실수하지 않도록 영력을 섬세하게 조율해서 붉은 빛으로 치료해줍니다.



서자[흑화]: ㄱ-



이치노스케: [알 럽 유 유 럽 미] @팻말을 기쁜듯이 흔든다



(From 세실리아 슈발츠발트): □└○ㄹ



(From 세실리아 슈발츠발트): 제가 말했죠 세실리아 죽여야한다고....



서자[흑화]: 스게

그러면 쥐들의 턴이군요



이치노스케: (그러나 마스터의 전략은 흔들리지 않는다)

(탱커 코로스)



호인: 끄음썩



이치노스케: (잊어먹기 전에 여우눈과 서자에게 감정을 획득)



서자[흑화]: 쥐이동



아라쉬: (아 저도 서자에게 감정 획득<)



서자[흑화]: 이치노스케에게

《역병발톱》:물리공격/근접상태/1체

1턴 중 1회, 대상에게 [형상: 검], 4d+20의 물리 대미지.

데미지 적용후, 대상에게 상태변화[맹독]부여



무장쥬 x20: "찍찍찍!!"



쿠사카베 린: (끼에엑)



무장쥬 x20: 무장쥬들이
이치노스케들에게 달려듭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네놈들의 피의 색은 뭐냐!)



무장쥬 x20: 명중 15



이치노스케: [가아악 위생병 플리즈!]



호인: (메디이이이이익!



이치노스케: 회피15....실패



무장쥬 x20: rolling 4d6+20

(4 + 2 + 4 + 5)+20

= 35

35데미지

+맹독



이치노스케: 물리공격이니 장갑으로 10경감

맹독입습니당

20데미지!

아 25!

오타오타!

체력은 제대로 25줄었으니!



무장쥬 x20: 강도는 6



이치노스케: 6...높다



무장쥬 x20: 쥬들의 손톱이

이치노스케를 무자비로 찢어놓습니다.

다음

호인이군요



이치노스케: [보여져버렸~!]



호인: 전투이동!

이쪽으로

좋아 충분히 커버 가능하군

무장쥬한테 근접상태 선언하고 무기공격하겠습니다



무장쥬 x20: 넵

회피 15



이치노스케: (앗... 니어오토마타...)



호인: rolling 2d6+11

(2 + 4)+11

= 17

성공이군요



엘자: "이압 익스플로전!"

@평

뒤쪽에서도 열일하고있나보군요



호인: 후라압 2

이게 아니야



Kaming (GM): 후라압?



호인: rolling 2d6+19

(6 + 2)+19

= 27

25 입니다

1랭



Kaming (GM): 넵

장갑3

22데미지!



호인: @달려오는 쥐떼들을 막아서며 주먹으로 몇놈을 찍어버립니다



무장쥬 x20: "찌익!!"



호인: "이 앞으로는 못간다!"



무장쥬 x20: 쥐들몇마리가

호인에게 맞아

날라갑니다.

--

종료페이지

이치노스케는 맹독으로



무장쥬 x20: 6데미지



Kaming (GM): 영력회복!



호인: rolling 1d6 영-력

(4)

= 4



아라쉬: rolling 3d6

(5 + 2 + 6)

= 13



Kaming (GM): 다른분들은?



쿠사카베 린: 영기울!

잊어버리지 않고!

3->4



Kaming (GM): 텃



이치노스케: 맹독에 의한 6데미지



호인: 핫하



이치노스케: 영력도 회복

rolling 1d6

(2)

= 2



쿠사카베 린: 완료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흠냐 잠시)



Kaming (GM):

개장찬가

특수 / 전투지대 / 1체 / 같은 눈

데미지 감소시 사용, 대상이 받은 마법데미지 반감, 턴(썬) 1회

오호

나도 누를 수 있네



Kaming (GM): 신기방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4d6

(6 + 6 + 4 + 6)

= 22

(토큰 오너십 있으면 누를 수 있음)



Kaming (GM): 뭐야 저 무지막지한

수치는..

실력이..?

무튼

종료페이지 끝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6664



Kaming (GM): 2R

개시



호인: 없ㅠㅠ



쿠사카베 린: 개시

전술보조!



서자[흑화]: "모든것을 부셔버려..지킬것도 없게..모두.."

《타락한 십이지》:특수/전투지대/1체

자신의 권속을 타락의 힘으로 강화시킨다.

모노노케1체가 공격시 자신과 똑같은 능력치를 가지게 하며 데미지 산출시 +2d수정을 가한다.



쿠사카베 린: 행동력을 업업

(왓)

(히이익)



서자[흑화]: 대상 이치노스케 앞에있는 무장쥬



아라쉬: 개시

기세소실

1을 사용



호인: (뿔...!!



쿠사카베 린: (능력치가 19대로 업하는군)

그래도 회피는 19...이쪽이 위다!



이치노스케: 맹독회복하려는데

내성판정....



Kaming (GM): 이치노스케는

그 판정치로

하면되요

모노노케 데이터에

판정치라고 있을꺼임



이치노스케: 넵 확인할게요

8이군요



Kaming (GM): 네 그러면 8로



이치노스케: 6보다높다!



Kaming (GM): 목표치는 15



이치노스케: 게에엑



호인: 나뵈...



Kaming (GM): 결국 이치노스케는



이치노스케: 목표치:강도가 아니었던건가!

흑흑



Kaming (GM): 맹독사할 운명인거시다.



이치노스케: rolling 2d6+8

(5 + 4)+8

= 17

호엿?



호인: 호에에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카밍가카리에는 커스텀 메이드 데이터가 절실하게 필요해보이는 것이다)



Kaming (GM): 판정치도



이치노스케: 아 아니구나



Kaming (GM): 고정치..



이치노스케: 고정치 나눠져있군요
뭐 이건 해제불가급이군!



Kaming (GM): 그렇지



이치노스케: 흑흑



Kaming (GM): 흑흑



이치노스케: 그 눈물
무슨 색입니까



Kaming (GM): 그러면



이치노스케: 게에엑



Kaming (GM): 2R개시 끝났죠?



이치노스케: 냅



쿠사카베 린: 아아

저 전술보조 행동치 안 굴렀네요
선언만하고



Kaming (GM): 냅
굴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1d6

(1)

= 1



호인: ?

쿠사카베 린: 콧...

이번턴 행동치는 +1



Kaming (GM): 넵



쿠사카베 린: 개시 끝!



Kaming (GM): 그림 서자턴

--



서자[흑화]: "부셔져라..!"

《초상포탄》

타이밍:상시 거리:사용자

대상:사용자 코스트:없음

개요:엄청난 괴력으로 들어올린다, 또는 초상능력을 이용하여 부유시켜 상대를 향해 고속으로 투가한다.

효과:대상은 매 턴 1회만, 인접한 1매스에 존재하는 「[명칭xn]의 모노노케」1체, 또는 [장애물]하나를 소멸시킴으로써, [거리:7매스/대상:1체]에 [효과 타입:물리공격/ 물리데미지:2d+「【명중】의 【고정치】x2」]의 [특수공격]을 실행한다. 소멸한 모노노케는 《재앙을 부르는 힘》으로 소환할수 없지만, PC는 경험치【령문】[소재]를 획득가능



서자[흑화]: 무장쥬들을

절편으로 휘감은뒤

던지기 시작합니다.

대상은 세실리아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명중고정 19?



무장쥬 x20: "찌익!!"

"살려..."

네



호인: (쥬가 말했다!



무장쥬 x20: 특수공격이라

간파판정으로

회피



쿠사카베 린: (호에에엑....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영문연소 호인 물리초월로 3디 추가



무장쥬 x20: "찌이이익!!"

@비명소리를 내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간파판정

13



무장쥬 x20: 세실리아에게 날라가는

20마리의 쥬들

싹빠이



호인: 방호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3d6

(6 + 6 + 2)

= 14



무장쥐 x20: 령문 14..

소모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데미지..



무장쥐 x20: 데미지는



호인: 일단 데미지를 봅시다



무장쥐 x20: 3d6+38

rolling 3d6+38

(1 + 3 + 4)+38

= 46

46물리데미지



쿠사카베 린: 고정치 38...



호인: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으시는데
방호 갑니까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장갑 2 44데미.



무장쥐 x20: 넵

방호없죠?



호인: 버티실건가요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내가 쓰는게 아니잖아?)
(그냥 맞고 버팀)



무장쥐 x20: 넵

그러면

퍽퍽퍽퍽!



호인: 넵



무장쥐 x20: 쥐들은 공포의 질린얼굴로 강렬하게
세실리아와 충돌합니다.



호인: 오우 아프겠다



무장쥐 x20: 이내 쥐들은 가루로 되며 소멸하지요
"찌익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, 오...."
@영력이 흐트러져서 괴로워하겠네요



서자[흑화]: 그리고

전투이동



호인: @쥐들을 두들겨 패느라 신경을 못써줌...



서자[흑화]: [무기공격]:물리공격/10매스/2체 대상에게 [형상:둔기], 5d+28의 물리 대미지.2회공격
대상 세실리아
"하하하!"



호인: 방호



쿠사카베 린: (히이익 죽이러온다)



서자[흑화]: @채찍을 휘두르는 서자



쿠사카베 린: (힐러부터 죽일셈이야)



호인: 데미지 먼저 보겠습니다



서자[흑화]: 일단 회피부터



호인: 회피판정 하시구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2체잖아 방호 가능하긴함?)



호인: 범위만 아니면



서자[흑화]: 가능함



호인: 가능



서자[흑화]: 범위 전투지대만
아니면 가능해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회피판정

16



호인: 아깝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장난하나)
(5디6보다 2디6이 높아)



호인: 방호



서자[흑화]: (ㄹㅇ)
무튼데미지는

rolling 6d6+28

(1 + 4 + 2 + 2 + 5 + 6)+28

= 48



호인: 두번 나눠서 들어오는건가요?



서자[흑화]: 회피 판정한번더
2회공격
@좌악!

-  호인: 일단 방호 코스트로 2
-  서자[흑화]: 하며 세실리아를 때리려는 찰나
호인이 오는군요!
-  호인: "그렇게 두지 않는다 서자!"
-  서자[흑화]: "....!"
-  호인: @찰씩 하고 채찍을 쳐냅니다
-  서자[흑화]: "또 너냐..호인!"
-  호인: 장갑 26
-  서자[흑화]: 《질투》:상시/사용자/사용자
누군가가 자신의 공격의 대하여 방어텔런트를 사용 할 경우 그 전투동안 데미지산출시 +1d(최대 4d)증가한다.
전투시 1회 방어텔런트를 무시한다.
데미지상승
-  호인: 22데미지
-  서자[흑화]: "계속 계속!"
세실리아에게
한번더 공격
-  호인: "네 모든 시기는 내가 받아주마 얼마든지 와라!"
-  서자[흑화]: 갑니다.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언제나 노려지는 거엔 익숙하지만...
-  서자[흑화]: 그리고..
호인에게는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운이 다한 것인가...
-  서자[흑화]: 《휘감아 박기》:특수/전투지대/1체
데미지 적용후 사용. 대상을 5매스 이내로 설치한다.. 이후 대상은 그 라운드간 이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수동판
정치가 -1된다.
-  호인: 으악
-  서자[흑화]: "꺼져있어!"
하지만 쳐낸손을 잘보니
채찍이
감겨있군요!
-  호인: "!!?"
-  서자[흑화]: 그리고 달려나가
땅에박혀버립니다!
쿵!
-  호인: "으윽!!"
@과당



서자[흑화]: 그리고 채찍은
세실리아를 향하지요
찰싹찰싹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명중 19



호인: (전에 방호이동도 불가능이라고 하셨죠?)



서자[흑화]: 네
이동관련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회피판정

10



서자[흑화]: 텔런트도
다 불가예요



호인: (바위 던지기 막아줄거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실패



호인: 걸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죽고 살아나면됨)



서자[흑화]: rolling 7d6+28

(3 + 1 + 3 + 6 + 3 + 6 + 1)+28

= 51

51 물리데미지

@차악!

세실리아를 강하게 타격하는
절편



호인: "세실리아!!"



서자[흑화]: "크..크크..하하하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그대로 맞고 바닥을 구르겠군요



서자[흑화]: "어때? 어때? 어때?"
"지키지못한 기분.."



호인: @던져지고 후딱 일어섭니다



서자[흑화]: "아직..더 부셔줄게 더.."
"나와 같은 고통을 맛보도록!"
"하하하하!"



호인: "아직이다 아직 그녀의 안에 내재된 불꽃이 맹렬이 타오르는것이 느껴지지 않는것이냐!"



서자[흑화]: 일단

세실리아
전투불능
다음 아라쉬턴



아라쉬: 그럼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일어날거야 내턴이잔아

@너무하자나

@린 태웁니다 생명연소

rolling 2d6

(2 + 2)

= 4



쿠사카베 린: (아앗 타버렸어)



서자[흑화]: 아라쉬턴이다용

일단은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표엔 내가 먼저였는데...)



아라쉬: -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뭐 그럼 그렇게)



서자[흑화]: 응

그렇군요

네



아라쉬: 그러면



서자[흑화]: 세실리아는 살아나쥬 일단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아라쉬 하고 나서 네)



서자[흑화]: 넵

그러면 아라쉬 ㄱ



아라쉬: 준비에서 무기효과로 +1

특수로 양식(2사용)

공격에서 영웅혼의 일격(5 사용)

대상은 서자

rolling 13+2d6

13+(6 + 4)

= 23

명중이쥬?



서자[흑화]: 넵



아라쉬: 극의, 심오로 +40

은밀 효과로 +5



서자[흑화]: 이걸아프다



아라쉬: $\text{rolling } 2d6 \times 3 + 57$

(5 + 6) * 3 + 57

= 90

18+57



호인: 엡ㅋㅋㅋㅋㅋㅋㅋㅋ



서자[흑화]: 고정딜ㅋㅋㅋ

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


쿠사카베 린: 엄마야



아라쉬: 75 데미지



쿠사카베 린: 히이익



호인: 미쳐버린 고정템ㅋㅋㅋㅋ



서자[흑화]: 네 마무리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커스텀 데이터가 정말로 절실하다)



쿠사카베 린: (우와아아)
(@끄덕끄덕)



아라쉬: 끼기기각-
"이걸로... 멈춰라."



서자[흑화]: @광기어린 웃음을 짓고있습니다.
마무리 해주세영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저런 극딜에 슬의 리즈바이페 궁같은거 써주면 좋아죽을텐데)



서자[흑화]: (좋아죽을듯)



아라쉬: 숨어있던 곳에서 튀어나온 아라쉬가
그대로 서자의 급소를 향해



호인: (키야..



아라쉬: 일사를 발사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서자....)



호인: 가차없는 공격이로다



서자[흑화]: 그러면 아라쉬의 화살은 서자의 가슴을 크게 뚫는군요
"커헭!"
"크흠.."



호인: "...서자..."

 서자[흑화]: @입에 검은피가 흐릅니다.

 쿠사카베 린: @눈을 질끈 감습니다'

 서자[흑화]: "크..크크..흐흐.."

@눈에서도 검은피눈물이 흐릅니다.

"또 나는 너에게 저버렸어.."

"좀더..강한..힘이 너의 모든것을 부숴때까지..나는 다시 돌..아..ㅇ.."

그리고

이내 소멸하죠

 호인: "내가 한것이 아니다...우리가 한것이지...그것을 상기해다오"

 서자[흑화]: 주변의 쥐들도 서자의 퇴장과함께
사라집니다.

 Kaming (GM): 전투종료

=====

 리포: 호이익

 Kaming (GM): 영력회복과
리포가되었다!

 아라쉬: rolling 3d6

(2 + 1 + 1)

= 4

 호인: rolling 1d6 영-력

(6)

= 6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쓰게 없어

 Kaming (GM): 갈무리

 쿠사카베 린: 갈무리타이무인가...

 Kaming (GM): 세실리아는 1체력으로 되살아나구용

 아라쉬: 자아. 호인이 하는 겁니다<

 호인: 크흠

 Kaming (GM): 12뜨면
대박 소근소근

 호인: rolling 2d6 갈무리

(4 + 5)

= 9



Kaming (GM): 꼬리



호인: 또 꼬리냐!



Kaming (GM): 2마리더

쥬꼬리 회피+1 1000G (효과치2)



호인: rolling 2d6

(3 + 6)

= 9

또!!



Kaming (GM): 쥬꼬리 회피+1 1000G (효과치2)

1마리



호인: rolling 2d6

(1 + 6)

= 7



Kaming (GM): 쥬꼬리 회피+1 1000G (효과치2)



호인: 고만해!



Kaming (GM): 꼬리 3개 얻으시구

령문은



호인: 쥬꼬리만 4개야ㅠㅠ



Kaming (GM): 전원령문 6회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1 6664 14



Kaming (GM): =====

@투광!

엘자쪽도 다 정리된듯하네요



엘자: "휴우.. 어떻게든 늦지않은모양이야"

@하며 땀을 닦으며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.



호인: "..."

@서자가 사라진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엘자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



쿠사카베 린: (모르는 아줌마가 무쌍을 펼치고 온 모양)



아라쉬: "아니... 영국에서 여기까지 온거야?"

"연락도 없이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흐아아...."

@공공거리면서 구석에서 일어나 앉습니다



엘자: "그것보다 그아이 많이 다친거같은데 괜찮아?"

@세실리아에게 다가간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안죽어....이정도론...."

@반말로 대답하면서 천천히 상처를 살피기 시작



호인: "미안하구나 서자의 일 때문에 내 신경쓰지 못했구나"

@호인도 세실리아에게 다가가요



엘자: "그..그래?"

살짝 머쓱하게 일어나서

@아라쉬에게 귓속말로

"요즘 아이들은 철이 빨리드는건가봐.>"



쿠사카베 린: "모 엉망진창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노려지는 건 익숙하고....



아라쉬: "세실리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으니까. ... 자기 일에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고. 보기보단 고연령이야."

엘자에게 속삭이듯 대답합니다.



엘자: "그렇구나"



쿠사카베 린: (엑 백스페이스 잘못눌렀다)

(크으웃 π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시끄러. 여자아이는 평생 17살이야."



쿠사카베 린: "...!!"



엘자: "...!"



아라쉬: "거기 두사람. 영향 받지 마..."



호인: "무슨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았군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가입해라 꽃발교



쿠사카베 린: "핫 아냐. 영원히 화이트데이 담보 3배를 의리초콜렛 배포로 얻어낼 수 있다곤 생각안 했어...!"



호인: @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립니다



엘자: "흠흠 아무튼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~ 나는 엘자. 아라쉬의 마스터이자 마법사야"



쿠사카베 린: "마법사!"



호인: "아라쉬의 동료인가?"



쿠사카베 린: (즉 마법소녀(17세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마법소녀 물리)



엘자: "좀더 빨리 오고싶었는데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렇군..."



엘자: "이곳 마력의 흐름이..이상하게 꼬여서 해석하느냐고 늦어버렸어.."

"전이마법은 작은실수도 위험하거든"@데헛

잘못하면 이상한 차원으로 날라갈 수 있는 마법을 대수롭지않게 사용하고왔다는 모양



아라쉬: "나를 현계에 소환해서 묶어두는것이 마스터야. 이 몸은 기본 마력으로 이루어진 영체니까. 엘자가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못하는거지."

"되도록이면, 위험한 이곳으로 불러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지..."

쓴웃음을 짓습니다.

-



엘자: "여기 독기 엄청나네.."

@콜록콜록



쿠사카베 린: "이것이 어른들의 세계.... 어덜트....!" @깨달음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안돼...?"



아라쉬: 자신의 머플러를 풀어서 엘자에게 건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상식적인 츠코미를 던지자.



엘자: "후훗 뭐랄까 나같은 부류는 조금 신비주의라서 사람이 많은곳은 서툴러서.."

"앗 고마워"

@아라쉬꼴 받아든다



호인: "아라쉬 그대의 동료들 위해서라도 이곳의 독기를 거둬내야할것같군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아 네..."



호인: "이대로 방치하면 위험하다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히키코모리군..

@살짝 고개를 절레절레



Kaming (GM): 독기는

분명 료우의 짓

뭔가의 주술이 있을겁니다.

그것을 파괴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겠지요.

그리고 서자의 대한 정보 해방



아라쉬: (이걸로 기혼자니까 반칙...(



쿠사카베 린: (2주일된 미역국 같은 걸 저수지에 부은 게 분명해요)



호인: (왜 하필 미역국ㅋㅋㅋ

독기의 근원을 감지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...역시 행운인가!



엘자: "콜록....무튼 이 독기를 어떻게좀..해줘 콜록"

"말하기 힘들어"



쿠사카베 린: 사료안이 피료할 때로군요

똥!



엘자: 네 감지입니다.



쿠사카베 린: 사료안!



호인: 해보겠습니다
@행운1



Kaming (GM): 난이도는
13/15



호인: rolling 2d6+1 떠라 스페셜

$$(5 + 4) + 1 = 10$$



쿠사카베 린: 앓 꽤 높다



호인: ㅠㅠ



Kaming (GM): 싯빠이
호인



쿠사카베 린: 15는 무리고... 6교환하면 13정도는 성공인가



호인: 1과 5를 교환하겠습니다...
1466 -> 4566



쿠사카베 린: 아 아이템중에
호랑이의 눈
이거 안 쓰고 있었군
이번턴에 쓰고...



호인:히익...



쿠사카베 린: 앓 그러고보니 저번에 받은 주능력치 +1 이럴때 써먹는건가



Kaming (GM): ㄱ ㄹ ㄷ



쿠사카베 린: 그럼 +9로 간다앗
사룬! 안!

rolling 2d6+9

$$(3 + 1) + 9 = 13$$



호인: ...?



쿠사카베 린: 6과 1을 체인지
영력조작!



Kaming (GM): 압
법칙장해 등장
린은



호인: 지성이로군



Kaming (GM): 독기의 안개를 뚫고
료우가 이 저수지를 오염시킨 주술의 근원지를 발견합니다.



호인: 호인 참가해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참여하죠.....흠.



Kaming (GM): 3명만 성공하면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지성이라면
활약장소군



아라쉬: 지성이면..
아라쉬는 바보라..



Kaming (GM): 바카 아라쉬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지성판정

13

@1을 6과 변경
@+5 18로 성공
@6641



호인: rolling 2d6+3 지성

(2 + 2)+3

= 7

바뀌도 안돼...!!



쿠사카베 린: 가랏 나의 빛나는 여고생 지성 11....!

rolling 2d6+11

(4 + 2)+11

= 17



아라쉬: 제가
성공해야 하는군요
지성은 2...



호인: 과연!!



쿠사카베 린: 앓 아아



Kaming (GM): 싯빠이하면..



아라쉬: 세실리아에 대한 영문을 연소하고



Kaming (GM): 보스가...강해져버렸



아라쉬: 다이스 3개 추가



Kaming (GM): 3개나!



호인: 앓...아아...영문연소 할걸..
아아..



아라쉬: rolling 5d6+2

(4 + 6 + 6 + 1 + 2)+2
= 21



Kaming (GM): ㄱㄱ
스페셜



아라쉬: 영문 소모



쿠사카베 린: 슷빠살



Kaming (GM): 영력 아무거나 바꾸시구



아라쉬: 1을 6으로 하나 바꾸고<

rolling 3d6

(4 + 4 + 3)
= 11

뭐어...

아 서자 잡고



쿠사카베 린: 영문 5 회복하니까



아라쉬: 영문 회복한거
있던가요?



쿠사카베 린: 갠차나!



Kaming (GM): 네
6



쿠사카베 린: 6회복했져



아라쉬: 오케이 10 남았고...
5 회복해서 15가 되는건가<



Kaming (GM): 넵
그러면
주술은 해제됩니다!
캉!
독기가 점점 사라지더니...
이내 없어지는군요



Kaming (GM): 정보공개

쿠사카베 린: 역시나 여우눈



호인: "잘도 이런짓을 자행하고 있었군..."



쿠사카베 린: 흑막...



엘자: "스읍..하아.."

@심호흡

"좋아 독기는 없어진거같네"

"에..그러니까 이쪽이...호인? 그리고 그쪽이 린.. 이쪽이 세실리아..던가?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여기도 해결되었고...



엘자: "아라쉬에게 많이 들었어!"

@여러분들을 하나씩 지목하며 이름을 말해보죠



호인: "아라쉬가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해줬는가?"

"그렇게 말해주니 기쁘군"



쿠사카베 린: "예쓰 아임 린!" @키랏키랏

@구태여 어떤 애기였는진 묻지 않는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조용히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립니다



엘자: "아하하..듣던것보다 개성넘치는 동료들이구나"



호인: "이런 인연도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"



아라쉬: "아아. 언젠간 만나게 할 생각이었는데. 설마 이런 타이밍에 만나게 될 줄이야..."



호인: "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아무래도 여유가 없을것군..."



엘자: "음 실은 아라쉬가 가고난뒤로 나도 별도로 조사좀 해봤거든.."



호인: "마침 물으려고 했었는데 잘됐구나"



엘자: "아직..아직은 추측일뿐이지만..가능성은 높아"

@조금은 심각한표정으로



아라쉬: "...앙그라마이뉴..."

"저번에 얘기했던 그건가."



호인: "앙그라...마이뉴...?"

@가웃



엘자: "이곳에 그 '사신' [앙그라마이뉴]가 있을 확률이.."

"한때 유럽을 공포와 혼돈으로 몰아넣은 '사신' 중 하나야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흐음."

@이단의 신인가...



쿠사카베 린: "사신...."



호인: "그 사신이 이 혼란의 원흉인가..."



엘자: "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이 그 '사신'때문에 일어났다는 소문도있지"



아라쉬: "인류의 역사의 어두운 면의 뒤에는."

"언제나 그러한 존재들이 엮여 왔지."



엘자: @꼬덕



아라쉬: "앙그라마이뉴는, 그중 대표적인 사신이야."



엘자: "아무튼 이쪽에서 일어난 과거의 [연옥의밤] 과 비슷한 사건이 그보다 더 전 유럽에서도 일어난적이 있어"
"그때 그 '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언제쯤?"



엘자: "음 지금으로 따지면 40년 전쯤이려나"



쿠사카베 린: "40년...." @_@ 넘나 오래 전이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태어난지 얼마 안되었을 때 정도인가...



엘자: "그때 '사신' [앙그라마이뉴]를 사로잡을뻔했지만... 이내 놓치고말았지"



호인: "내가 이곳에 없을시기로군..."



엘자: "마술협회와 성당기사단.. 각종 다른 단체들까지 혈안이 되서 유럽전역을 뒤졌지만..
"찾을 수 없었어.."

"그리고 일본에서 [연옥의 밤]이 일어났지"

"유럽에서 일어난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어서 우리들은 혈안이 되어 일본으로 몰려왔지만.."

"결국 [앙그라마이뉴]는 찾지못하고 일본에는 흥미를 잃게된거지 그래서 모두 떠난거고 물론 일본이 평화로워진것도 있지만.."

"성당기사단도 아마 같은이유로 그때 일본에 왔을꺼야.."



아라쉬: "나는 그 때, 엘자에게 소환되었다가."
"이곳 일본에 남은거야."



엘자: @꼬덕..
"그리고 다시 일본에 그 조짐이 보이려고해..
"그래서 나는 조사차 이곳에 왔다는 말씀이지"
정보공개



호인: "하지만 어쩌서 이 시기에 그 악의는 눈을 뜬것인가..."



쿠사카베 린: "그러게..."



엘자: "아마...나의 가설일 뿐이지만"
"우리..아니 성당기사단과 마술협회가 사라지길 기다리게..아닐까..."
"평화를 가장해 긴장을 풀게만들고.."
"안쪽에서 조금씩 그녀석은 준비를 하고있던거겠지..."



호인: "그렇군 상황이 느슨해질 때를 노린것인가...간교한 꾀를 부리는군...!"



엘자: "물론 가설이야"@하하



아라쉬: "신인 그녀석에게. 시간은 잔뜩 있으니까."
"엘자의 예상은. 맞을거라고 생각해."



엘자: "그런데 오자마자 이런상황일줄은.."



아라쉬: "...나도 그걸 경계해서 일본에 남은거지만 말야."

-



엘자: @주변을 보며

"좀더 아군을 데려올걸...그랬나 나만의 가설일 뿐이라서 홀몸으로 왔거든"

"애초에 우리같은 족속들은 협력..이런게 별로 없기도하구.."

@머리를 긁적

"어찌보면 다 경쟁자라.."



쿠사카베 린: "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!" @방긋



호인: "외부의 다른 인원들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혼란에 주목 하지 않은것인가?"



엘자: "그게....나도 아라쉬에게 듣기전까지는.."

"일본이 평화로운줄 알고있었어.."



호인: "그런가..."



엘자: @끄덕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흠...



아라쉬: "인상조작도. 준비중 하나겠지."

"...그렇네. 엘자. 여기서는 일단 한번 마술협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해두는게 좋지 않을까."

-



엘자: "그래 그러는게 좋을꺼같아 그럼 전이마법의 준비를.."

라며 마법진을 그리는데....

"어..어라?"



호인: "무슨일인게냐?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안되는 거겠지."



엘자: "여기..마력의 흐름이 이상해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뭐, 대충 예상은 가능하니까...



아라쉬: "...영맥인가..."

그 생각을 못했다고하며, 한숨을 내쉽니다



호인: "아니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알아야 그것을 깰수 있으니 말이다"



엘자: "음..곤란하네 이건"

"아라쉬 말대로 이곳에 '영맥'이란것이 방해하고있어"



아라쉬: "대영맥의 흐름이 흐틀어진 덕분에. 땅에서 마력을 끌어다 쓰는 마법진의 효력이 엉키는거... 라고 생각하면 될거야. 호인."



Kaming (GM): 그런데..

그때

세실리아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.

빠리리



호인: "역시 사쿠야의 영핵이 탈취당한것이 문제가 된것이로군..."

@아라쉬가 말해주면 심각한 표정이 됩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또야...

"네에."



카미야 료코: "세실리아아아아아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영력으로 공중에 띄운 채 스피커모드로 전환



카미야 료코: 료코의 목소리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아....."

@그럼 손에 들고 귀에 대고 스피커모드 끄니다.



카미야 료코: 스피커모드로

모두가 들었다



쿠사카베 린: "똥헛!" 깜짝



아라쉬: 까아아아아에 귀 테러를 당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

-



호인: "....?"

"방금 그소리는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왜, 왜. 뭐."



호인: @목소리의 주인을 가늠해보는중



카미야 료코: "으아아앙! 쥐가..쥐가아아!"

"히익! 더러워 징그러 기분나빠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너의 동물친화력으로 어떻게 해봐"



서자[흑화]: (시무룩)



카미야 료코: "그..그치만...너무 많단말이야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어딘데...?"



카미야 료코: "집까지..들어왔어 나갈 수 없어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알았어, 금방 갈게."



아라쉬: "...건강한 애네. 여기까지도 목소리가 다들려."



카미야 료코: "에..?"

"와주는거야?"

"고마워!"



아라쉬: 세실리아를 보면서 나머지 일행들에게 이야기합니다

-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딱히 부끄러운 얘기 안하고 있으니 신경 안쓰고



호인: "아무래도 위험에 처한듯하구나"



카미야 료코: "역시 세실리아는 천사! (이하 엄청난 칭찬들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끓는다



카미야 료코: "나중에 귀..(이하생략)"



호인: "일이 끝나기 무섭게 바쁘게 움직여야겠구나!"



카미야 쿄코: 그러면 메시지가 옵니다.

[너무해! 아직 말 안끝났는데..]

[아! 그런데 거리에 남자아이가 쥐들한테 둘러쌓여있어...쥐 무섭지만 내가 어떻게든 해볼께! 그러니까 빨리와 줘]

라는 메세지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미친..."



호인: "무슨일이더냐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욕설을 내뱉고

@그대로 집 쪽을 향해서 빠르게 뛰어가버리겠군요



엘자: "에..? 에?"

"뭐야 무슨일?"



호인: @세실리아를 보고 뒤따라갑니다



엘자: @아직 상황파악안됨



아라쉬: "친구에게 뭔가 급한 일이 생겼나 보네."

"...마스터도, 영국으로 전이마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."

"일단은..."

잠시 고민합니다.

"본부로 가는게 좋으려나..."

-



엘자: "아니 아까부터 신경쓰이던게 있었어"



쿠사카베 린: "그러게..



엘자: @묘켄산쪽을 바라보며

"아까 그 채찍(?)쓰던 이상한 꼬마"

"그 아이의 기운 저 주변에서 느껴지거든.."



아라쉬: ...?

"서자의 기운이?"



호인: (이걸 들었어야 했는데!!



아라쉬: "호인은... 이미 가버렸나."

"내가 확인하러 가볼게."



엘자: "글쎄..아까랑은 조금 다른듯하기도..하고 열은거같기도 하고.."



아라쉬: "린. 마스터를 부탁해."

-



엘자: @곰곰



쿠사카베 린: "응!"

"말겨뒤!"

엘자: "조심해"



Kaming (GM): =====

그러면 씬을 닫고
마스터씬 들어가겠습니다.
=====



카미야 쿄코: "으아아앙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쥐가아!"

높은 식탁위에서 농성(?)중인 쿄코짱
"그래..이럴때는"
@세실리아에게 전화
----- (이하생략)
"홀쩍...쥐 징그럽고 기분나쁘고 하지만 밖에 저소년은 얼마나 무서울까! 그래 여기서는 연장자가 나서서 구해야 하만.."



카미야 쿄코: @두리번두리번

"그래..이거라면! 유X브에서 봤어"
@손에들려있는 에프킬라와 라이터...?



아라쉬: (무모와 용감은..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(야 이 미친녀나 콘)



카미야 쿄코: "어라 그러고보니 그 유튜버들 어떻게됐더라?"



호인: (...그러지마...



카미야 쿄코: "에잇 지금 그런거 신경쓸때가 아니야! 간다 소년! 내가 지금 구하러갈게!"
@푸화아아악!
"길을 비켜라아아아아앙아ㅏ"
그렇게 불로 쥐들을 태우..지는 않고 피하게 한다음



쿠사카베 린: (차라리 유튜브 쥐똥을 써...)



카미야 쿄코: 소년을 향해 달려갑니다.
"소년! 내가 왔으니 걱정말게!" @분위기에 취해있다.



Kaming (GM): 어떻게든 쥐들을 물리치고(?) 소년의 곁까지 다가옵니다.



서자[흑화]: "헤에...너 조차도 누군가를 지키기위해 나오는구나"



쿠사카베 린: (나니오 스룬다아아)



카미야 쿄코: "에..? 소..년?"



서자[흑화]: "정말....질투나"

=====



Kaming (GM): 마스터씬 아웃



쿠사카베 린: 앓아아



호인: 서자야 그러면 아니딘다
된다



쿠사카베 린: 새로운 커플링이...



(From 세실리아 슈발츠발트): 리빌드할 시트가 읊다...



Kaming (GM): 다음 씬플레이어 정해보겠습니다.



호인: 커플링이라니...?



Kaming (GM): d100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1d100

(40)

= 40



호인: rolling 1d100

(100)

= 100

뭣!?



쿠사카베 린: 엄마야



Kaming (GM): 스..고이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1d100

(21)

= 21

슛고-이



Kaming (GM): 아라아라

쉬

아라쉬의 기세소실 효과는 대단했다



아라쉬: rolling 1d100

(7)

= 7



Kaming (GM): 는 알터님이 튕기셨군



아라쉬: 통-



Kaming (GM): 7

ㅋ

ㅋ

ㅋ



호인: 억...

호인의 압도적인 등장력



Kaming (GM): 서자보려고
엄청뛰시네



호인: ㅎㅎ....
근데 진짜 서자가 아닐거같아...
솔직히 서자한테 원말해줘야 될지 난감하긴 하네영



Kaming (GM): 호인이 너무 강한게 문제야! 호인이 잘못했네!



호인: ;;;
남들은 다 모르는 호이니 과거를 이야기 할수도 없고
미리 말씀드렸어야했는데 억



쿠사카베 린: 서자를 삼성세탁기에 넣고
굴러굴러서
표백



호인: 호인 그렇게
안강해요
아라쉬가 더 강한데 왜그래!!



Kaming (GM): 알터님 오셨군!



호인: 호인은 세실리아가 없으면
그저 빈껍데기나 다름없는거시다



쿠사카베 린: 흑화한 캐릭터는 다시 더듬이를 달아주는 것으로, 흑화가 풀립니다



호인: ...?



쿠사카베 린: 즉 서자가 잃어버린 더듬이를 찾아 붙여주면 서자 얼터가 다시 서자로....



호인: 서자는 커다란 귀가 있는데!
거기에 더듬이를 달면 너무 이상해져버렸!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흐암 그지같은 알트엑스)



쿠사카베 린: 바보털이라고도 하죠 참



Kaming (GM): (알트엑스!)



쿠사카베 린: 안테나라거나



호인: 아...그렇군
아 맞다
서자 묶은머리였는데
안그려버렸영...



Kaming (GM): 그러면 어디보자
=====

호인부터군요
등장 초대해주시구
장소는 세실리아와함께 쿄코의 집이죠?



호인: 일단 전원 초대 넣고 요켄산으로 가실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세실리아가 먼저 갔으니
네
묘사상으로는 세실리아의 뒤를 호인이 쫓아가는 식이겠군요
헉...스토커 호인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안나가고싶다)



호인: (어...죄송
(그럼 일단 전원 초대넣고



쿠사카베 린: 저는 엘자(연령미상)지키는 중



호인: 호쿄코집으로 가죠



쿠사카베 린: 원작에서 그 얼굴로 30대던가.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묘사 다해놓고 이미 늦음)
@나가요



Kaming (GM): 등장판정 ㄱ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행운판정

9



Kaming (GM): 영력조작없으면
진행하겠습니다.

=====

호인과 세실리아는 전력을 다해 쿄코의 집으로 향하고있습니다.
그러면 주택가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죠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달려가면서 상처부터 치료하겠군요



Kaming (GM): 고위치료인강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서자 분신 있는거 같고요. 네



Kaming (GM): 펌블만 아니면 됩니당 고우



호인: "서자가 물고온것인가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
고위치유

광휘치유, 치유 마술의 달인 효과 적용중.

공격 / 전투지대 / 1체 / 6, 홀

마법공격, 대상의 생명력 랭크3 마법데미지 회복, 효과 적용시 영력 1개의 값 +-1(선택), 임의로 고위치유 1회 사용 가능, 추가 고위 치유 코스트 통상 소비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명중: **12**

회복량: **34**



Kaming (GM): 거짓말같이
펌블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6 >1

 호인: 허...
세상에

 Kaming (GM): 하지만 전력질주하던 탓인가요..
영력이 꼬여버립니다.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이래서 만나가고 싶었는데)

 호인: (아 휴식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쫓..."
@영력이 제대로 말을 안들으면 허를 차고는 무시하고 달려요.

 Kaming (GM): -----
-쿄코의 집앞-

 호인: 자가수복을 해도 될까요?
아 이미 썬 시작인가

 Kaming (GM): 네

 호인: 자가수복
준비 / 사용자 / 사용자 / 홀
특수능력. 대상의 생명력을 [사용자 임의의 [주 능력치]]만큼 회복한다. 이 《탈런트》는 준비를 소모하지 않지만,
한 턴(썬)에 1회 밖에 사용 할 수 없다.

5를 사용합니다

 Kaming (GM): 압

 호인: 9회복

 Kaming (GM): 그러면 어디보자...
처리해주시고
여러분이 쿄코의 집앞에 오면..
누군가의 목을 붙잡고 들어올리고있는 서자

 서자[흑화]: "질투난다고...너같이 약한..."

 아라쉬: (아아. 이건 죽었다.)
(서자가)

 호인: 당장 달려들어서 잡아챌수 있을까요?

 서자[흑화]: "일반인..인간이!"
"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게 말이야!"

 호인: "멈춰라!!!"

 카미야 쿄코: "큭.."
"살...르"

 호인: @당장 서자에게 달려듭니다!!

Kaming (GM): 그러면



쥐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호인의 접근을 막습니다.



서자[흑화]: "뭐야..호인이야?"

@그쪽으로 시선을 주며



호인: "크흑...!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내려놓는게 좋을거야."



서자[흑화]: ".....?"

@세실리아에게도 시선을 줍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내려놓는게 좋을 거라고."



서자[흑화]: ".....너 그 눈빛"

@쿄코와 세실리아를 번갈아보더니

@입이 찢어지게 웃습니다.

"이 아이...소중한사람이구나"

@목을 더욱 껍틀어칩니다.



카미야 쿄코: "커흑...!"



호인: "!!?"

"멈춰라 서자! 증오심을 표출할 대상을 잘못정했다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그렇게 나온다 이거지...."



호인: "그리 고통을 주고싶거든 내가 상대해주마!"



서자[흑화]: "닥쳐 부외자는 빠져있어 호인.. 이야이는 저녀석의 소중한 사람이라고?"

"봐봐"

"두렵지? 소중한사람을 잃는다는게.."



호인: "시끄럽다! 벌써 잊은것이야? 십이지는 고통받는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! 그것에 부외자건 뭐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알텐데!!"



서자[흑화]: "크크....좋아 좋아"



호인: "내가 길을 열수있다면 열어두겠다 저 아이를 구하러 가보거라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....뭐어."

@구한다....라.

"공격은 특기가 아니라서 무리일 거 같은데."



호인: 으음...쥐떼들을 돌파하고싶은데 시도해볼수 있을까요?



Kaming (GM): 가능합니다.



호인: "뭣하면 돌을 불러도 좋다 내가 시간이라도 끌어보겠다!"



Kaming (GM): 체력 난이도 14



호인: 무섭군...

전에 펌블이 떠가지고;;

rolling 2d6+9

(1 + 2)+9

= 12

1을 4와 교환

15로 성공이 될거에용

펌블이 아닌게 다행..



Kaming (GM): 넵

성공



호인: @바로 쥐떼의 파도로 냅다 돌격해서 힘으로 쥐떼들을 날려보냅니다



Kaming (GM): 쥐들이 호인의 강력한 힘에 날라가는군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, 튜틀린 열력을 억지로 끌어내서 술법을 발해서
@쿄코를 잡은 서자의 손을 풀어보려고 해보죠.



Kaming (GM): 발동치로 판정해서 서자의 저항을 이기면될꺼같습니다.

난이도 17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아라쉬 태워서 물리초월 다이스 3개 추가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발동판정

36

rolling 3d6

(6 + 6 + 1)

= 13



호인: 압도적...!



Kaming (GM): 스페셜

령문 13소모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영력 1 > 6



서자[흑화]: "큏..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피도 회복하던가?)



서자[흑화]: 손에서 쿄코를 놓치고합니다.



호인: 떨어지는 쿄코를 받아들수 있을까요?



서자[흑화]: nope

가능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그대로 쿄코를 자신의 뒤로 데려와요.



호인: 굳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붉은 영력으로 묶어서.

서자[흑화]: "아아...부시지못했나"

-  호인: 그럼 호인은 서자랑 대치하겠습니다
-  서자[흑화]: "아쉬워..아쉬워....아쉬워"
@크크크크크!
"하지만 그거알아..?"
"쥐는 온갖 역병을 물고다니는 존재야.."
-  호인: "무슨말을..."
-  카미야 교코: "콜록..콜록!"
-  호인: @교코를 돌아봅니다
-  카미야 교코: 심하게 기침하는 교코..
-  호인: "설마...!!"
-  카미야 교코: 서자에게 잡혔던 목이 검게 물들었네요
-  서자[흑화]: "하하하하하!"
-  호인: "서자!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귀찮은 짓거리 하네, 정말."
@웃어제끼는 서자에서 시선을 돌려 교코의 상태를 확인해보겠네요. 서자는 관심 밖이라는 듯.
-  호인: "사신이 네 정신을 뒤틀어 놓았구나!! 당장 눈을 떠라!!"
-  Kaming (GM): 세실리아가 확인해보니... 일반적인 역병이 아니라..
-  호인: @호인은 서자를 가로막아설게요 그럼
-  Kaming (GM): 서자 본인의 힘으로 만든 저주같습니다.
-  서자[흑화]: "지키지못하면...지킬게 없도록..모두 부셔버리면되는거야"
-  쿠사카베 린: (어디까지 가는가 서자...)
-  호인: "억측이로구나 네게 힘을 준 존재가 그리 말하더냐!"
*억지
-  서자[흑화]: "그래 모든걸 부셔버리면..지킬필요따윈 없다고.."
"지킬게 없도록 만들면되는거야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뭐어...치료는 불가능한 거군.
-  서자[흑화]: "너도 그녀를 지키고싶은거겠지? 토끼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글쎄, 어떨까."
-  서자[흑화]: "나는 부순다. 너희들이 지키는것을...너희는 지킨다 소중한것을..그 뿐인거야 내가 부수면 나의 승리..지키면 너희승리.."
-  아라쉬: (타카스기 신스케 같은 대사 하고 있군 서자)
-  호인: "...우리가 이기면"
"너를 수행원에 넣어버릴것이다 서자..."
-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아, 맘에 안들어."

-  서자[흑화]: "너에게 그녀를 지킬 힘이 있을까?"
@세실리아를 바라보며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여기까지만 말하고, 그대로 쿵코를 안아들어요.
-  서자[흑화]: "하하하하하!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남에게 빌린 힘으로 나대면서 시끄럽게 짹짹대는 쥐 한마리 조질 힘은 있겠지."
-  서자[흑화]: (히 화남 무서워)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한마디 남기고는 그대로 돌아서겠네요.
@쥐가 귀찮게 안하는 데로 옮겨놔야지....
-  호인: 다녀오세용
-  서자[흑화]: "이 얼마나 유쾌..희열"
-  호인: "...마음 고생이 심했구나 서자야"
-  서자[흑화]: "하!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"
"너도 잘 지켜보라고:"
"네 동료의 소중한사람이...죽어가는 모습을 말이야"
"하하 기대하고있겠어"
"그때의 너의 표정을 말이지.."
@몸이 쥐로 변하며 스르르 사라지기시작합니다.
-  호인: @측은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겠군요
"이 모든것은 고스란히 네 업이 될것이다 서자..."
"그래도...난 너의 업을 조금은 덜어주고 싶구나"
-  Kaming (GM): 주변의 쥐들은 서자가 사라지자
전부 사라졌습니다.
쿵코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볼만한 여유가 생겼군요.
-  호인: @쥐가 다 사라지면 다시 세실리아를 따라가서 쿵코를 지켜주겠네요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일단 살펴보기 전에 본부로 옮기겠군요
-  카미야 쿵코: "쿨록..쿨록...아파..뭐야..이거 뜨거워.."
세실리아의 품안에서 초점도 잘 보이지않는듯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분수에 맞지 않는 신비에 접한 댓가야."
-  카미야 쿵코: "...이목소리 세실리아다.."@베시시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우리를...나를 미워하고 경계하는게 좋다고 했었을텐데."
-  카미야 쿵코: "나..공주님 안기..당하고 있는거야..?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넌 끝까지 말 안듣는구나."
-  카미야 쿵코: @헤헤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아뇨. 어깨에 걸쳐 매고 있습니다만.
-  호인: (;;



카미야 쿄코: @하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한지 공주님안기당하고있다고 믿고있다
"구하러...와줬어.. 세실리아.. 고마워."
"쿨룩 쿨룩!"
목에 검은반점들은 서서히 몸전체로 퍼져나가고있군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이게 구한거야? 멍청한 건 여전하네."



쿠사카베 린: (우히이...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당장 손 쓸 방법은 뭐...저주라고 했었죠?



카미야 쿄코: 네
자세한건 좀더 알아보면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그럼 당장 해주할 방법은 없는거군요.
@증상을 자신에게 옮길 수 있습니까?



카미야 쿄코: 불가
하지만 저주를 해주할 방법은
알아볼 수 있을꺼 같습니다.



호인: 몸한테 감지하는것처럼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좋아요. 그럼 살펴보죠.



호인: 저주에 대해 감지하는건?
그것이로군요



카미야 쿄코: 감정판정입니다!
지성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난이도?



카미야 쿄코: 난이도는 14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지성판정

17



카미야 쿄코: 성공
세실리아에게 정보8공개
^^



Kaming (GM): 그러면 이후 호인이 합류하겠군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어차피 살려줄 생각은 없었어."
@피식 웃습니다. 오히려 잘됐군.
"자신의 나약함을 남에게 전가하는 미련한 녀석은 없는게 나으니까..."



호인: @착-지
"...?"



Kaming (GM): 쿄코는 이내 병세가 악화되었는지..
정신을 잃었군요

이상태라면 하루도 못넘길꺼같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한숨.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...



호인: "아이의 상태가 많이 안좋구나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공주님 안기로 들어서 본부로 옮깁니다.



Kaming (GM): (쿄코짜앙! 중요한때에 기절을!!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회복시킬 방법은 알고 있어."



호인: "가면서 듣도록 하마"



Kaming (GM): 그 방법은 지금 세실리아만 알고있지요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딱히 알려줄 생각은 없습니다.



호인: (ㅠㅠ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대로 본부로...



호인: @침묵에 의아해하지만
이내 린한테 연락을 넣고 어디인지 물어볼거예요
썬 끝!



Kaming (GM): 그러면 썬아웃 하겠습니다.

=====



쿠사카베 린: (우와앗으익)
(동료애가 부조카다)



호인: (예상이야 하고있지만
(서자가 죽어야하는건가
음 가슴아프네요



쿠사카베 린: 쿠시미타마로 정-화?



Kaming (GM): 다음은 세실리아의 썬입니다.
만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정보가 너무 많아)
@지금 우리가 찾아가봐야 할 곳이 어디어디?



Kaming (GM): 아 아니다 진행해도 되겠군



호인: 묘켄산이랑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정보 개수가 너무많아



호인: 음 당장 제가 알고있는건 묘켄산인데
정보가 더 있으신분?



Kaming (GM): 묘켄산뿐이죠
지금은



호인: 자 그럼 세실리아 썬이지요?



Kaming (GM): 압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묘켄산으로 향하죠. 엘자가 준 정보잖아야 전해들었겠지.



Kaming (GM): 초대 오네가이시마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전원



Kaming (GM): 넵

등장판정해주시구!

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호인: rolling 2d6

(1 + 1)

= 2

....

가다가 발목나갔나



쿠사카베 린: 다, 다이쥔부...



Kaming (GM): 호인 영력제일높은것

->1

등장은 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

(5 + 5)

= 10



호인: 바꿨습니다

그리고 영력회복도

하나요?



Kaming (GM): 네



호인: rolling 1d6

(2)

= 2



쿠사카베 린: 1과 5를 체인지할게요

5 획득!



Kaming (GM): 넵

아라쉬님은?



쿠사카베 린: 아 1이 아니라 2로

영력을

잘못봤다...



아라쉬: 아



쿠사카베 린: 토큰에 수정을 안해줬군!
1234였는데



아라쉬: 일단
등장판정을
해야겠구나

rolling 2d6

(4 + 1)

= 5



Kaming (GM): 등장



아라쉬: 성공.



Kaming (GM): 영력조작해주시구
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

=====



쿠사카베 린: 념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1d6

(5)

= 5

(아 뭐양 아니네)
@산타기...싫다....



Kaming (GM): 세실리아와 호인보다 먼저 와있던 린과 아라쉬와 합류합니다.



호인: @호인은 린을 통해서 위치를 알았다고 하지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분위기가 착 가라앉아있군요.



호인: @도-착



쿠사카베 린: @그러하다



Kaming (GM): 세실리아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있군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기분이 좋지는 않은 듯.



쿠사카베 린: @셋쌍의 기분이 좋지 않다... 암전히 있자



호인: @착잡한 표정으로 산을 올려다보빈다



쿠사카베 린: "묘켄산..."



엘자: "따라와버렸습니다"

@데헛



호인: "어차피 당장 의탁할곳이 없으니 괜찮다"
"그리고 네게 도움도 받았으니"



엘자: "마력의 흐름이 저 산을 중심으로 흐르고있어"



호인: @그말에 산을 쳐다보겠습니다



엘자: "아마 저 산이 심장부분인거겠지?"
@자세히는 모른다
"그리고 아까의 그아이 분명 느껴지는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"
@이것도 자세히는 모른다



아라쉬: 그럼. 먼저 갔던 아라쉬가 나무에서 뛰어 내립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알아보면 되는 거겠지, 그런건."



아라쉬: "결국 와버렸나..."



엘자: "신경쓰여서..그리고 이곳 처음이고..무섭고.."



호인: "거기까지만 알아냈다면 괜찮다"
"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"



아라쉬: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.



엘자: "일단 이 마력의 흐름..공유할게"
손을 허공에 빠르게 무언가 그리자..
여러분들에게 푸른빛의 흐름이 보이기시작합니다.
"내가 보고있는걸 너희도 볼 수 있게 마법을 걸었어"
"이걸 따라가면될꺼야"



쿠사카베 린: "이 끝에..."
@꿀꺽, 침을 삼킵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호오. 이걸 도움 되는군...."



엘자: "헤헤.."



호인: "무엇이 있을지는 가봐야 알겠지..."



엘자: @칭찬에 쑥스러워한다.



호인: "호의에 감사한다"



엘자: "...어떻게 아라쉬 나 칭찬받는거에 안익숙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!"
@아라쉬에게 도움요청



아라쉬: "평소대로 당당하게 있으라고."



엘자: "ㄱ..그런가 알았어"
@당당
@한척!



아라쉬: "...그리고. 여기서부터는 나한테서 떨어지지 마. 마스터."



엘자: "오케이. 알았어"



아라쉬: -



엘자: "그럼 조심히 가보자"



호인: 고고!



Kaming (GM): 그렇게 여러분을 숲을 해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.

그리고 익숙한..신사를 발견하는군요.

분명 시로가 있던 무너진 신사..



쿠사카베 린: "이곳은...."

"...."



호인: "시로가 있던곳..."



엘자: "...역시 여기야 여기서 그아이의 기운이 느껴져"



호인: "서자가 이곳에...?"



엘자: @꼬덕

"하지만 뭔가..달라 조심해"



호인: 먼저 다가가봐도 될까요?

"...알겠다..."



Kaming (GM): 호인이 다가가면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. 달라졌어도 해야할 건 같으니



Kaming (GM): 신사안에 누군가가 있습니다.



호인: (탱이니까 먼저 가야징



서자: "....."



호인: "서자...?"



서자: 팔은 천장에 검은쇠사슬로 묶여있고
무릎꿇은채 고개를 떨구고있습니다.



호인: "서자야!!"

@달려가봅니다



서자: 그러면 여러분 전원에게
서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.



호인: 오우..



서자: "나는 지키지못했어."

"모두 죽어버렸어"

"나는 약해. 그누구도 지킬 수 없어"



쿠사카베 린: "대체..." @서자를 보고 혼란스럽게 됩니다



서자: "동료는? 모두는 어디..?"

그런 중얼거림이 모두에게 들려옵니다.

"나는 혼자.."

"지키지못했어"

"나때문에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어중간하게 착한 척 하지 말라고."



서자: "모두 죽은거야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중얼중얼.



Kaming (GM): 호인이 외쳐봐도
서자에게는 들리지않는듯합니다.



호인: 서자에게 가까워질수도 없는것이죠?



Kaming (GM): 호인이 달려가면
검붉은 스파크가 튀며 호인을 튕겨냅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!!"



호인: @튕겨져 나가 대굴데굴 굴러왔
"으윽! 서자!"



쿠사카베 린: 서자를 둘러싼 무언가가 있는건가



서자: "모두 죽었어 나때문에"
"나는 약해..."

초점없이 계속 중얼거리는 서자



호인: "상실감에 짓눌려선 안된다!!"



쿠사카베 린: 감지나 탐색...? 둘러싸고 있는 게 있다면 해제할 수 있을지 몰라...!
판정시도해보고 싶습니다



호인: 감지고자...



엘자: "무언가 결계가 쳐져있는거 같네.."
감지군요



쿠사카베 린: 난이도는 어떠려나요?



엘자: 13/15



호인: 혹시 모르니 저도 시도해보겠습니다당...
은 린이 있으니 괜찮을거야
...더 월드...!!



Kaming (GM): 토키여 토마레!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+7

(1 + 6)+7

= 14



Kaming (GM): 부분성공이군요 ㅋ



쿠사카베 린: 갖고 있는 1과 3을 체인지



Kaming (GM): 넵

법칙장해 등장!



쿠사카베 린: (민첩....다토)



호인: 민첩이라니;;



Kaming (GM): 아무래도 서자는 이 법칙장해로 인해
계속해서 끊임없이 되살아나고있던것 같습니다.



호인: 일단 소거 참가하구
일행들이 결계를 쉽게 찢을수 있도록 해놔야겠지요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참여는 하죠.



Kaming (GM): 소거군요

넵

난이도는 민첩 13



호인: "린 결계의 중심이 어딘지 알겠느냐?"



Kaming (GM): 필요인원은 전원!



아라쉬: 민첩... 하하



Kaming (GM): (사실 2인으로하고 2명에서 다할꺼같다)



쿠사카베 린: "...저기야!" @손가락으로
가리킵니다



호인: "알겠다"



아라쉬: 2명이서하면... 17?



쿠사카베 린: 민첩 13은 크리스프지 않는 이상 무리...
저번에 회복한 영문도 있고
음..아니
보정치가 너무 낮구나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일단은 참여한다고 했어....
@민 6이다...
..!!



쿠사카베 린: 민2....



Kaming (GM): 민첩높아

세실리아

토끼라서 그런ㄱ,...



호인: "내가 틈을 벌리겠다 아라쉬, 세실리아"
"부탁하마"
먼저 판정 갈게요

rolling 2d6+11 무섭다

$$(2 + 4) + 11$$

$$= 17$$



Kaming (GM): 린은 참가?

아니면 난이도 2상승해서

15입니다.



아라쉬: rolling 2d6+8

$$(5 + 3) + 8$$

$$= 16$$

평범하게 성공



호인: 저도 성공이네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참여 여부를)



쿠사카베 린: 간다앗



Kaming (GM): 린린 참여여부좀

참여군



쿠사카베 린: 고민한 결과 영문 하나정도 써주겠어



Kaming (GM): 실패하면 시X광이이에영!



쿠사카베 린: 서자 구하는데

빠질 순 없습니다



호인: (!?



쿠사카베 린: 6도 하나 있다규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민첩판정

13

(조작도 필요없군)



호인: @자신을 튕겨낸 결계에 달려들어 강제로 틈을 벌려놓습니다



Kaming (GM): 성공



쿠사카베 린: 생명연소 해당하는 부분에 서자가 없지만



Kaming (GM): 린만남앗



호인: 가라린!



쿠사카베 린: 여우눈(쿠사카베 료우)를 태워서

2D추가!

간다

rolling 4d6+2

(4 + 1 + 3 + 1)+2

= 11



호인: ?!



쿠사카베 린: 나뉘...



호인: 여...영력조작을...!



쿠사카베 린: 4와 6을 체인지
13...!



Kaming (GM): 여우눈은 생명연소쪽에있지만..



쿠사카베 린: 아
위치 잘못봤다고!?



호인: 호인을 태우시면
됩니다



쿠사카베 린: 내 시력은 0.5일텐데
콧... 호인을 미디엄 레어로
태웁니다
콧콧



호인: @화르륵



Kaming (GM): 네 그러면성공
지지지지직....
파캉!
여러분들의 힘을 견디지못한 결계가
유리창처럼 산산조각납니다.



호인: "서자야!"
@결계가 무너지자 마자 서자에게 달려가욧



서자: "나는 실패작..."
"나는..."



호인: "...."



아라쉬: (공포심... 내 안의... 공포심...)
(사요코오오오오)



서자: 서자의 눈에 초점은 없고



호인: @비통함이 묻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서자에게 천천히 다가가...



서자: 같은말과 자책을 되풀이 할 뿐입니다.



호인: 사슬은 끊을수 있을까요?



쿠사카베 린: "서자짱...." @홀찍



서자: 호인이 시도해보면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공격 가능합니까?



서자: 끊어지지 않습니다.



호인: "...크윽...!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숨통끊기라던가.



호인: "제길!!"

@끊어지지 않을거라는것을 알면서도



서자: 불가능



호인: 뭔가에 메달리듯 쇠사슬을 계속 내리칩니다



서자: 서자를 만지려해도..



호인: 아 아애 접근자체가
불가능한거군요



서자: 지나쳐갈뿐이죠
유령처럼..



호인: 내려치지만 허상일뿐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이걸로 죽일 수 있겠네."



서자[흑화]: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검은 쥐때들..



호인: '서자가...죽는다...'



서자[흑화]: ".....찾아냈구나.."



호인: "..."

@조용히 서자를 돌아봅니다



쿠사카베 린: "아...!"



서자[흑화]: "그것은 나의 악함"

"나의 후회"

"나의 공포"

"필요없기에..때버렸을뿐"

"그것은 내가 아니야"

"나는 강해졌어! 악한 저때랑은 달라"



서자[흑화]: "이 모습이 진짜 '서자'다"



호인: "허나 허무하다 끊임없이 힘을 추구한 결과는..."

@천천히 일어섭니다

"그저 남에게 고통을 줄뿐인 너 자신일뿐..."

"서자에겐 자상함과 포용력이 있었다"

"그것을 버린 순간 넌 서자가 아니다"

"어째서 자신이 십이지로 선택됐는지"



호인: "그것을 망각해버린 그 순간"
"넌 자신을 버린것이야..."



서자[흑화]: "멋데로 지껄이시지! 지금의 나는 강해. 이세상은 강한게 전부야!"
"강하면..더이상 상처받을일따위 없을테니까"
"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약했던 나의 과거를 청산하겠어. 너를 죽임으로써 말이지"
절편을 호인에게 겨눕니다.
"네가 지키는것들은 모두 부수겠어"



호인: "그렇다면 와라"
"네 업은 내가 전부 받아줄테니"



쿠사카베 료우: "이야이야 이거 뜨겁네요"



호인: "그리고 너를...되찾겠다!!"



쿠사카베 린: "설마 전부 혼자하겠단 건 아니지?" @짱긔



쿠사카베 료우: @우산을 타고 나무에서 내려오는 료우



쿠사카베 린: "힘껏 도와줄게!"



호인: "고맙다"
@린에게 웃어주고는
료우에게 다시 시선이 쏠리겠네요



쿠사카베 료우: "어라 또 모두 모여있네요?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불만이야?"



쿠사카베 료우: @짐짓모르는척
"아니아니 잘됐다 싶어서요"
@웃음
"마침 저도 작업이 막 끝난참이여서"
@땀땀는척



호인: "구차하게 허나 놀리려고 온것은 아닐텐데?"
@적대감을 표출합니다!



쿠사카베 료우: "아! 그러보니 마침 잘됐네요"
"모두 모인김에 소개하도록하지요"
@손을 활짝퍼며
"제가 고생하고 고생~~~해서 데려온"
"저의 최강의 식신"
갑자기 지면이



쿠사카베 린: "식신...!?"



쿠사카베 료우: 진동하기시작합니다.



호인: "!?"



쿠사카베 료우: 구구구구구구구구구

마치 지진이 난것처럼!



쿠사카베 린: "?! 뭐, 뭐지!?" @비틀비틀



호인: "이 진동은...!"



쿠사카베 료우: "나와주세요~"
"오오무카데"



오오무카데: "키야아아아아아아악!!!"
쿠와아아아앙!
땅을 뚫고 나오는 거대한 지네
구구구구구구구구



호인: "이런 흉물을 숨기고있었나...!!!"



오오무카데: 엄청난 크기의...거대지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저건 또 뭐야..."



오오무카데: 묘켄산을 몸으로 휘감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징그러...눈을 찌푸립니다.



쿠사카베 료우: "이야..힘들었다구요"



아라쉬: "거대 지네..."

-



쿠사카베 료우: "식신으로 만드는데.."
"이걸로 이 영맥의 중추를 부실겁니다"
묘켄산 정상을 바라보며



쿠사카베 린: "저, 저거... 옛날이야기에나 나오는.... 히이이" @소름돋는다



호인: "그리 둘 것 같으냐!!"



쿠사카베 료우: "그쪽도 식신을 가지고있지 않나요? 린"
"저처럼 열~심히 노력하면 저런 식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"
"노력하세요"
@선생모드
그러하다



쿠사카베 린: "웃기지 마세요!"



쿠사카베 료우: 료우도 린과 같은



쿠사카베 린: "자기 성격 꼬인 걸 식신으로 드러내는!"



쿠사카베 료우: 콘트렉터인것이다



쿠사카베 린: "성도착자가!" @최근 뉴스에서 배운 단어를 쓴다
@유식!



쿠사카베 료우: "....건방진 꼬맹이군요 이상한 단어는 배워와서는"
@살짝 빠직마크가 나온것같지만
미소를 잃지않습니다.

"그러면 서자씨도 당신의 소원을 위해..좀더 힘내주세요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저걸 부수고, 쥐새끼도 죽이고."



서자[흑화]: ".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너도 없애면 일단은 되는거군...?"



아라쉬: "....."



호인: '...서자...업이 깊어지는구나...하지만 모든것이 끝난다면...'



서자[흑화]: (이렇게 생김)



호인: @조용히 그 거대한 식신의 앞에 섭니다

찌고망지만;;

어떻게든 일행들을 감싸기 위해 약간 앞으로 나서네요



쿠사카베 료우: "훗 그럼 힘내보세요. 카미가카리 제군들"



쿠사카베 린: (샌드웜이잖아!)



호인: (저는 미리 봤지용



쿠사카베 료우: (지네가 저것밖에 없ㅇ..)



호인: (호고곡



쿠사카베 료우: "자 그럼 시작~"

@짹

박수를 치자 거대지네가 움직이기시작합니다.

=====

오늘은 여기까지



악동양반: 다들 고생하셨어용



Kaming (GM): 고생하셨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수고하셨습니다



악동양반: 이야...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피 1인건 여전하군

펄블 ㅅㅂ



악동양반: 활력수 줄걸 그랬나...



Kaming (GM): 설마 펄블

ㅋ



악동양반: 3개 가지고계셔서



쿠사카베 린: 활력수....시작하자마자

드셔야겠어 ㄷㄷ



악동양반: 그리고 RP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할지도 모르겠고

도와주고는 싶은데 허어..